

농업 · 농촌경제 동향: 2002년 6월

2002년 6월 29일

<목 차>

I. 일반경제

II. 농업 · 농촌경제

III. 품목별 수급동향

IV. 지역언론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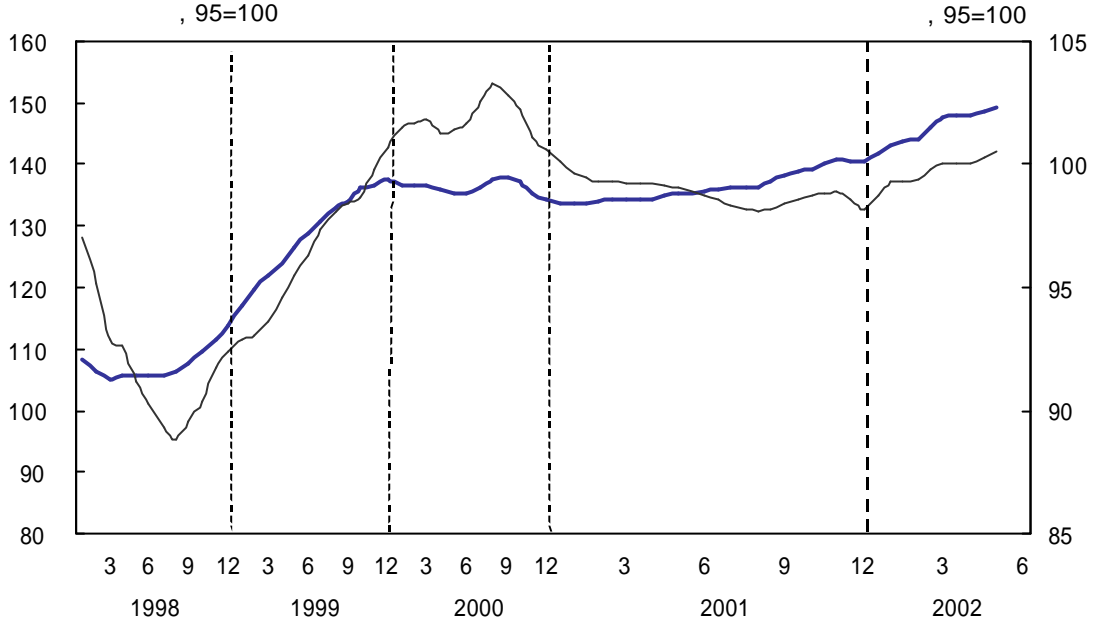
V. 이 달의 집중분석: 원유 · 한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일반 경제

1. 경기동향

<경기종합지수>



<경기종합지수 변동>

	2001년	2002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동행지수 ¹⁾	98.2	99.3	99.4	100.1	100.0	100.5
전년동월대비(%)	△2.5	△0.4	0.1	0.9	0.8	1.5
선행지수	140.5	143.1	144.1	147.6	148.1	149.2
전년동월대비(%)	4.7	7.2	7.5	9.8	10.1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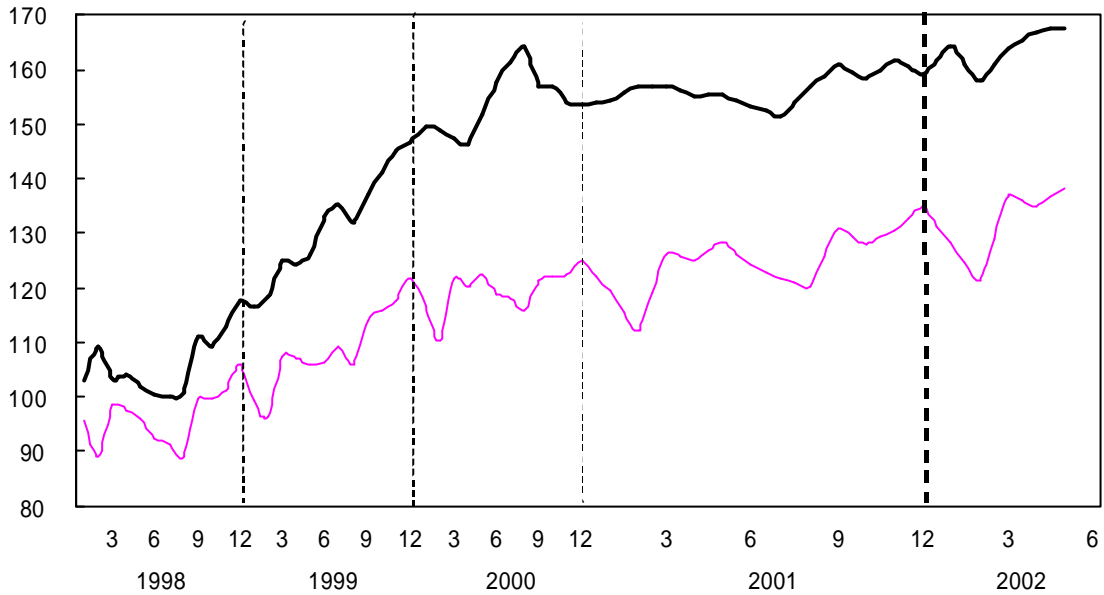
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의미

자료: 통계청

-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5를 기록하여 상승세 지속)**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상승한 100.5를 기록, 전년동월 대비 1.5% 상승함으로써 4개월 연속 상승세.
- **(선행지수 상승폭 확대 지속)** 5월 선행지수는 전월대비 1.1p 상승한 149.2를 기록, 전년동월 대비 10.4% 증가하여 작년 말 이후 상승폭 확대 지속

2. 산업생산 및 소비

<산업생산 및 도소매판매지수>



<산업생산 및 도소매판매 변동>

	2001년		2002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산업생산 ¹⁾	161.6	159.1	164.3	157.8	163.8	166.8	167.6
전년동월 대비(%)	5.0	3.5	6.5	0.6	4.4	7.5	7.9
도소매판매	130.4	134.9	128.0	121.2	136.8	135.0	138.1
전년동월 대비(%)	6.6	8.1	7.3	8.1	8.3	7.8	7.5

1) 계절조정치

자료: 통계청

- **(산업생산 증가세 지속)** 5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8p 증가한 167.6을 기록, 작년 10월 이후 증가세 유지. 전년동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어 산업활동 호조세 지속.
- **(도소매판매 증가세 유지)** 5월 도소매판매는 전월대비 3.1p 증가한 138.1을 기록. 전년동월 대비 7.5% 증가하여 작년 말 이후 꾸준한 증가세 유지.

3. 소비심리

<소비자 기대지수 및 평가지수>



<소비자 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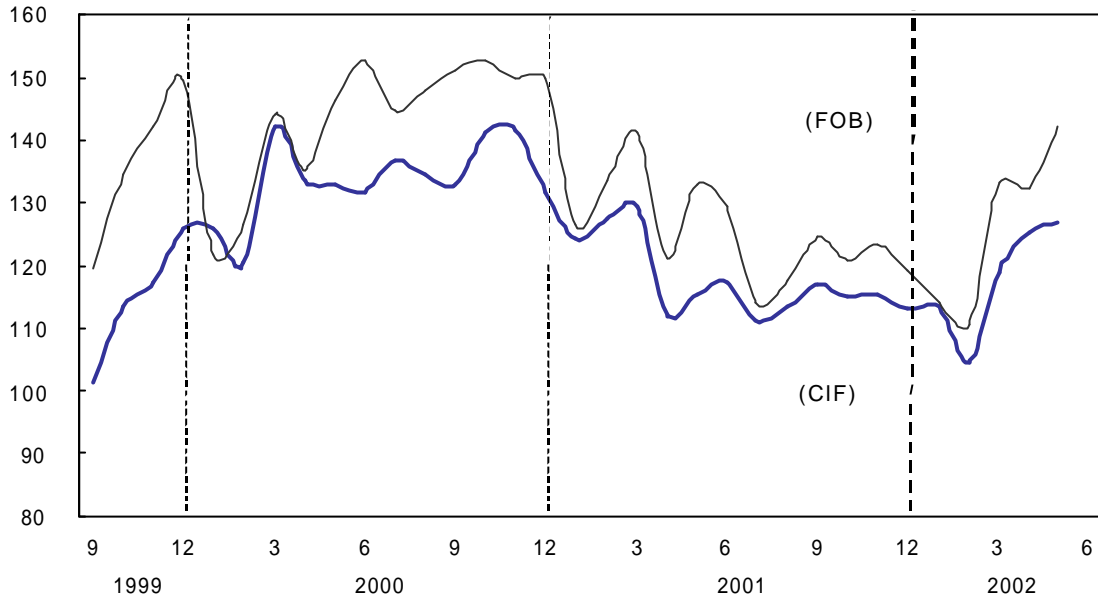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평가지수	83.6	89.2	97.4	100.5	105.9	107.2	107.6
전년동월대비(%)	21.5	38.1	40.3	37.3	42.9	32.5	21.9
기대지수	96.7	100.9	106.7	107.7	109.7	109.4	109.1
전년동월대비(%)	17.4	22.7	19.0	17.1	16.6	13.6	9.6

자료: 통계청

- **(소비자 평가지수 상승세 지속)** 5월 소비자 평가지수는 전월대비 0.4p 상승한 107.6을 기록. 금년 2월부터 4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고 있어 소비심리 호조세가 지속.
- **(소비자 기대지수 소폭 하락)** 5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한 109.1을 기록, 4월에 이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100을 상회. 이는 6개월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나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

4. 수출입 및 무역수지

<수출입 및 무역수지>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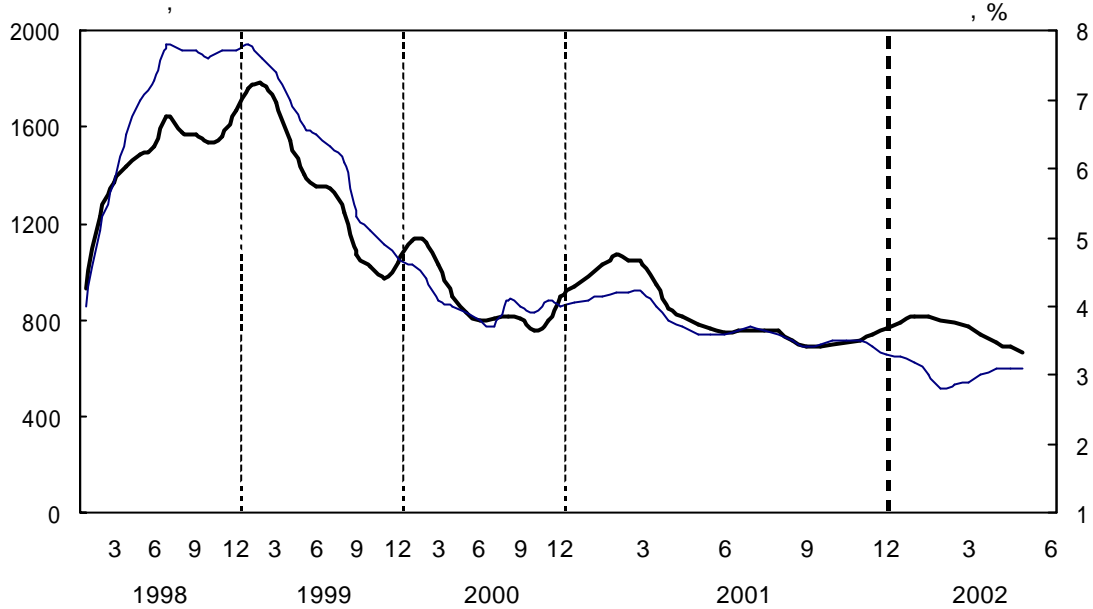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연간	4/4	1월	2월	3월	4월	5월
수 출	1,504.4	363.5	114.0	110.4	133.3	132.4	142.2
전년동월대비증감율	△12.7	△19.6	△9.8	△17.3	△5.7	9.2	6.9
수 입	1,411.0	343.4	113.3	104.6	119.1	125.4	126.9
전년동월대비증감율	△12.1	△17.1	△8.9	△17.9	△8.1	11.9	9.8
무역수지	93.4	20.1	0.7	5.9	14.2	7.0	15.4

자료: 관세청

- **(수출·입 2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5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한 142억 2천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9.8% 증가한 12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입 모두 2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5월 무역수지 14.4억 달러로 금년 들어 최대)** 5월 중 수출액이 작년 3월 이후 14개월만에 14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여 금년 들어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시현.

5. 고용

<실업자 및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1년	2002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경제 활동 인구	22,181	21,845	21,901	22,292	22,768	22,884
취업자	21,362	21,025	21,099	21,523	22,060	22,223
실업자	819	819	802	769	707	661
전년동기대비	△7.9	△16.6	△25.0	△25.7	△16.6	△15.3
실업률 (계절조정)	3.7	3.2	2.8	2.9	3.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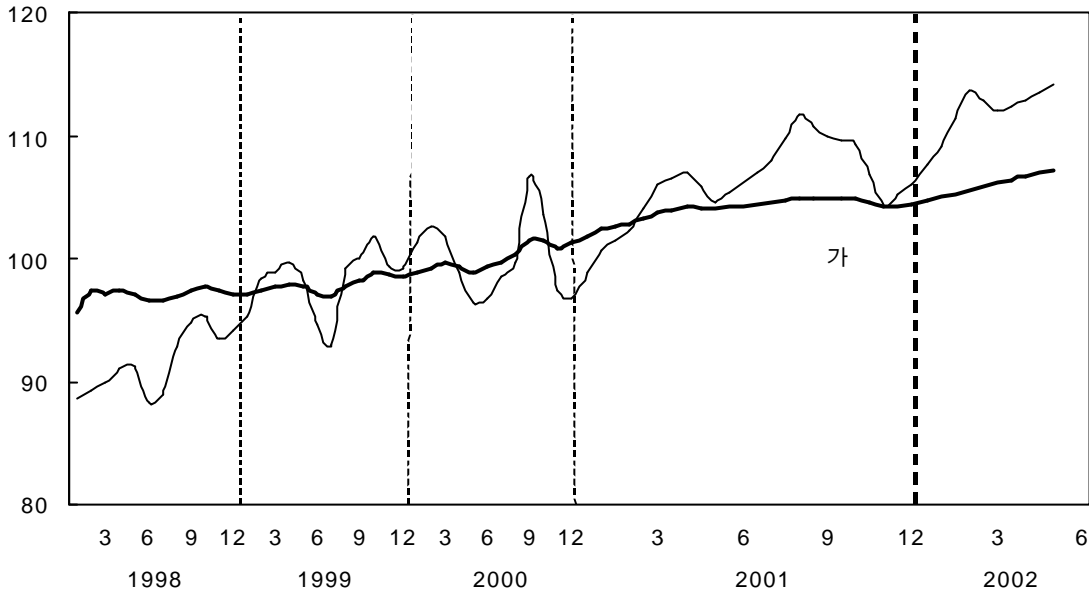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고용 여건 호조세 지속)** 경제활동인구 증가속에 5월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6만 3천명 증가한 2,222만 3천명, 실업자수는 전월대비 4만 6천명 감소한 66만 1천명을 기록하여 고용 여건 호조세 지속

○ **(계절조정 실업률, 전월과 동일한 3.1%)** 실업률(원계열)은 전월에 비해 0.2p 하락한 2.9%를 기록했으나, 계절진폭을 고려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1%를 유지.

6. 물가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 및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단위: 지수(20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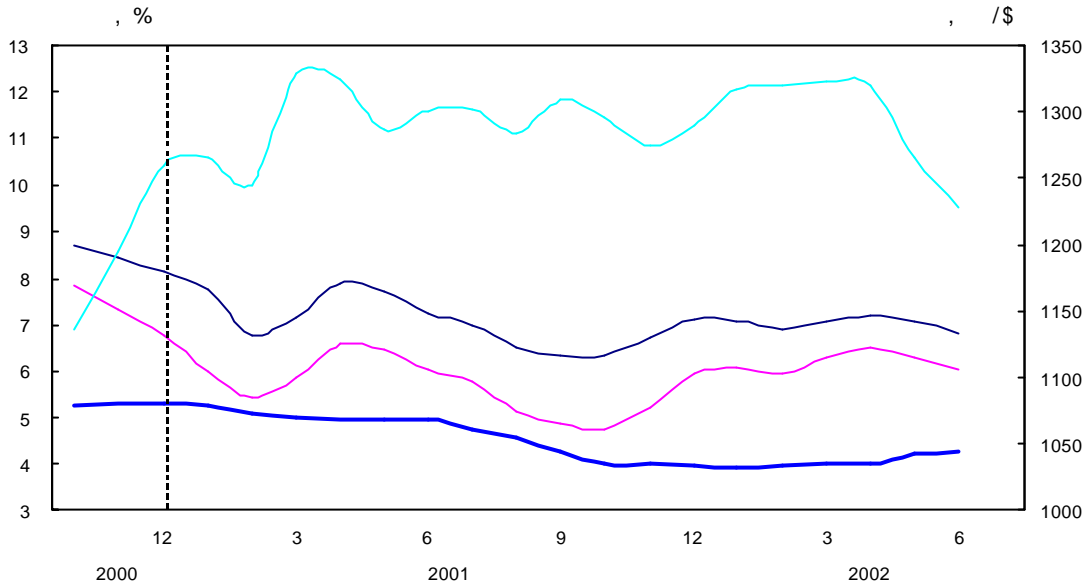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	104.2	104.4	105.0	105.5	106.1	106.7	107.1
전년동월대비(%)	3.4	3.2	2.6	2.6	2.3	2.5	3.0
농축수산물	104.3	106.0	109.1	113.6	112.0	112.8	114.2
전년동월대비(%)	7.2	9.5	8.3	11.2	5.8	5.4	9.2

자료: 통계청

- **(소비자 물가 완만한 상승세 지속)** 5월 소비자 물가는 공업제품, 집세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p 상승한 107.1을 기록, 전년동월대비로도 3% 상승하여 완만한 상승세 지속.
- **(농축산물 소비자 가격 큰 폭으로 상승)** 5월 농축산물 소비자 가격은 일기불순으로 인한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9.2% 상승한 114.2를 기록.

7. 금리 및 환율

<월평균 금리>



<월평균 금리 및 환율 변동>

단위: %, 원/\$

	2001년		2002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콜금리	3.99	3.96	3.95	3.97	3.99	3.99	4.21	4.27
국고채**	5.23	5.93	6.08	5.92	6.30	6.48	6.30	6.02
회사채**	6.71	7.11	7.07	6.89	7.05	7.21	7.07	6.82
환 율	1,274.0	1,289.7	1,317.6	1,318.7	1,322.5	1,320.0	1,266.1	1,228.2

1) 3년물 기준, 회사채는 AA-기준, 2) 6월 22일까지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 **(장기 시장금리 2개월 연속 하향세)** 장기 시장금리는 한은의 콜 금리 목표 인상과 함께 일시 상승했으나, 환율, 주가하락이 지속되고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다소 완화되면서 하향세 유지.
- **(세계적 달러화 약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 큰 폭의 하락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유입 부진으로 달러화 약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경기의 견실한 회복이 맞물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 향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듯.

8. 주요 선진국 경제

□ 미국

<미국 경제의 주요 지표>

	2001년		2002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질 GDP ¹⁾	-	0.5	-	-	1.5	-	-
산업생산 ²⁾	137.2	136.7	137.6	138.1	138.7	139.1	139.3
경기선행지수	110.2	111.4	112.0	112.0	122.1	111.8	112.2
수출 ³⁾	779.1	774.8	777.0	774.8	784.2	801.1	-
수입 ³⁾	1078.1	1047.6	1072.1	1103.7	1108.9	1160.5	-
무역수지 ³⁾	△299.1	△272.8	△295.1	△328.9	△324.7	△359.4	-
소비자 기대지수 ⁴⁾	76.6	82.3	91.3	87.2	92.7	89.1	92.7
실업률(%) ⁵⁾	5.6	5.8	5.6	5.5	5.7	6.0	5.8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1992=100, 3) 상품과 서비스, 계절조정(억달러) 4) 1966.1=100, 5) 계절조정치

자료: The Conference Board, BEA, BLS

- **(미국 경제의 불투명한 회복세 지속)** 금년 1/4분기 재고투자 감소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1.5%의 GDP 성장을 기록한 미국 경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각종 경기관련 지표들이 등락을 거듭.

- **(4월중 무역수지 적자 359억 달러로 점차 확대 추세)**

□ 일본

- **(2002년 1/4분기 GDP 성장률 △1.6, 그러나 전분기대비 연율로는 5.7% 상승하여 4분기만에 증가세로 반전)**
- **(4월중 수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하여 상승세로 반전)** 산업생산은 완만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실업률은 5.2%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여 경기회복 기대.

<일본의 주요 경가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2001				2002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GDP 성장률 ¹⁾	△0.5			△2.3			△1.6	
산업생산 ²⁾	93.0	92.7	90.4	91.1	91.0	92.1	92.8	93.0
수출 ³⁾	△11.3	△9.0	△9.6	△15.7	△2.9	△4.3	△2.9	1.3
실업률	5.3	5.4	5.4	5.5	5.3	5.3	5.2	5.2

1) 전년동기대비, 실질, 2) 광공업 산업생산(1995=100), 3) 엔화표시 증감률
 자료: 일본 내각부, 총무성 통계국

□ 유로(Euro)지역

<유로지역의 주요 경가지표>

단위: %

		2001			2002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유로 지역	GDP 성장률	-	-	0.3	-	-	0.1	-
	산업생산 ¹⁾	△2.6	△4.1	△4.7	△2.9	△3.3	△2.7	△1.2
	실업률 ²⁾	8.3	8.4	8.1	8.2	8.2	8.2	8.3
독일	산업생산	△3.0	△3.9	△4.2	△4.5	△5.3	△4.0	△2.2
	실업률	8.0	8.0	8.0	8.1	8.1	8.1	8.1
프랑스	산업생산	△2.2	△2.3	△3.3	△1.4	△1.1	△0.6	0.7
	실업률	8.7	8.8	8.9	8.9	9.0	9.1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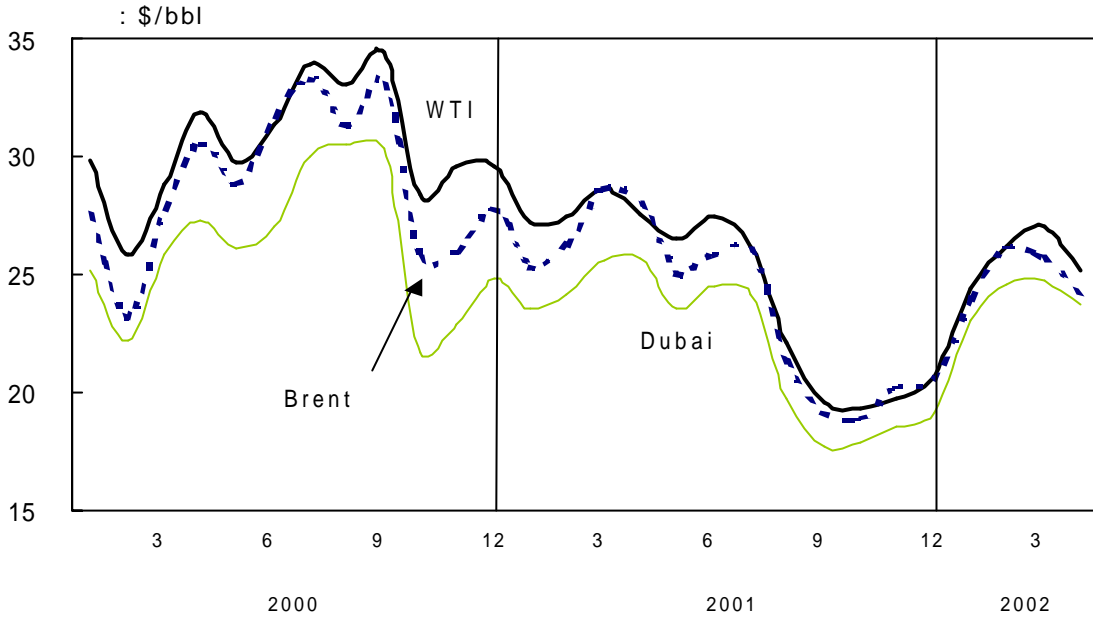
1) 근무일 조정치 2) 계절조정치
 자료: EUROSTAT

○ (유로지역 2002년 1/4분기 GDP 성장률 0.1%)

○ (유로지역 경제 점진적 회복세 지속) 유로지역 경제는 금년 들어 산업 생산 감소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한편 실업률도 안정세를 보여 경기 침체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고정투자의 감소세, 유로화 강세,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경기회복 둔화 우려 대두.

9. 국제유가

<국제유가 변동>



<최근 3개월 국제유가>

단위: \$/bbl, %

	2001	2002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¹⁾
WTI	27.57 △13.5	19.70 △33.4	20.69 △30.1	24.40 △10.3	26.22 △4.3	27.03 △5.6	25.11 △8.9
Brent	27.95 △8.5	20.18 △22.3	20.55 △26.1	23.96 △5.4	26.13 △0.5	25.66 △10.3	24.10 △13.8
Dubai	25.70 △5.8	18.54 △19.1	19.10 △23.1	23.01 △2.0	24.57 1.4	24.74 △3.4	23.75 △7.6

1) 6월 21일까지 평균, ()안은 전년동월대비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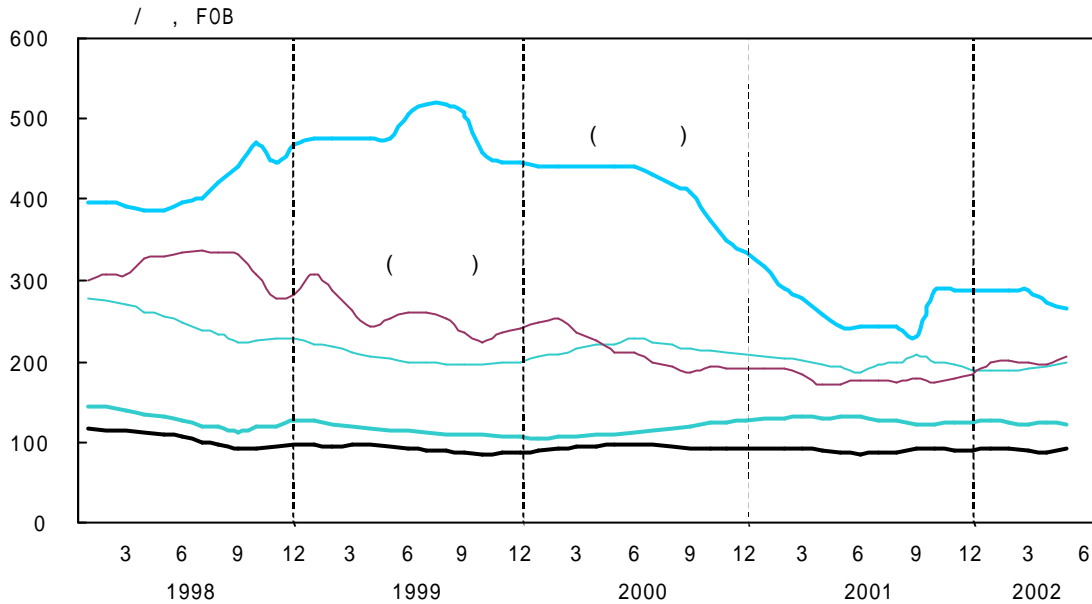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유가 하락세로 반전)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4월을 정점으로, WTI 유는 5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 중동위기로 인한 유가급등 우려 완화와 전반적인 석유 수요 둔화로 당분간 국제유가는 약세 전망.
- (향후 국제유가는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

Ⅱ. 농업 · 농촌경제

1. 국제 곡물가격

<국제 곡물가격>



<국제 곡물가격>

단위: \$/톤

	2000	2001		2002				
		연간	4/4	1월	2월	3월	4월	5월
쌀(중립종)	413.6	267.1	287.0	287.0	287.0	287.0	274.0	265.0
쌀(장립종)	211.0	178.8	178.7	197.0	201.0	198.0	196.0	207.0
콩	211.8	195.8	188.3	188.0	187.0	191.0	195.0	197.0
옥수수	88.5	89.6	89.3	92.0	90.8	89.6	87.1	90.3
밀	114.1	126.8	123.7	125.7	123.3	122.5	123.7	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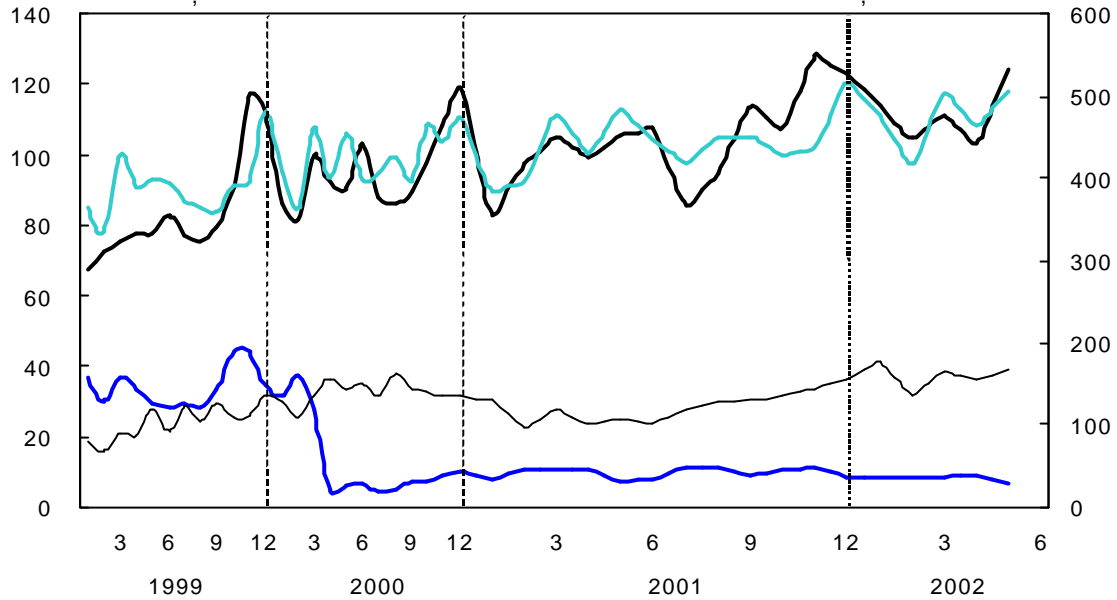
주1): 중립종 쌀은 U.S. Medium California (정곡) 1등급, 장립종 쌀은 태국산 100% Grade B(정곡), 소맥은 U.S. Gulf No.1 HRW, 옥수수는 U.S. Gulf No.2, Yellow, f.o.b. 대두는 U.S. c.i.f Rotterdam 가격임.

자료: USDA, ERS, Rice Outlook, Jun,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 (5월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 하락세, 장립종은 상승) 중립종 쌀의 국제 가격은 5월 들어 이집트와 호주의 수출 공급물량 확대 및 미국의 수요 감소로 하락세 지속. 장립종은 태국정부 매입으로 상승세.
- (기타 곡물의 국제가격은 전월과 유사)

2. 농축산물 수출입

<농축산물 수출입>



<농축산물 수출입>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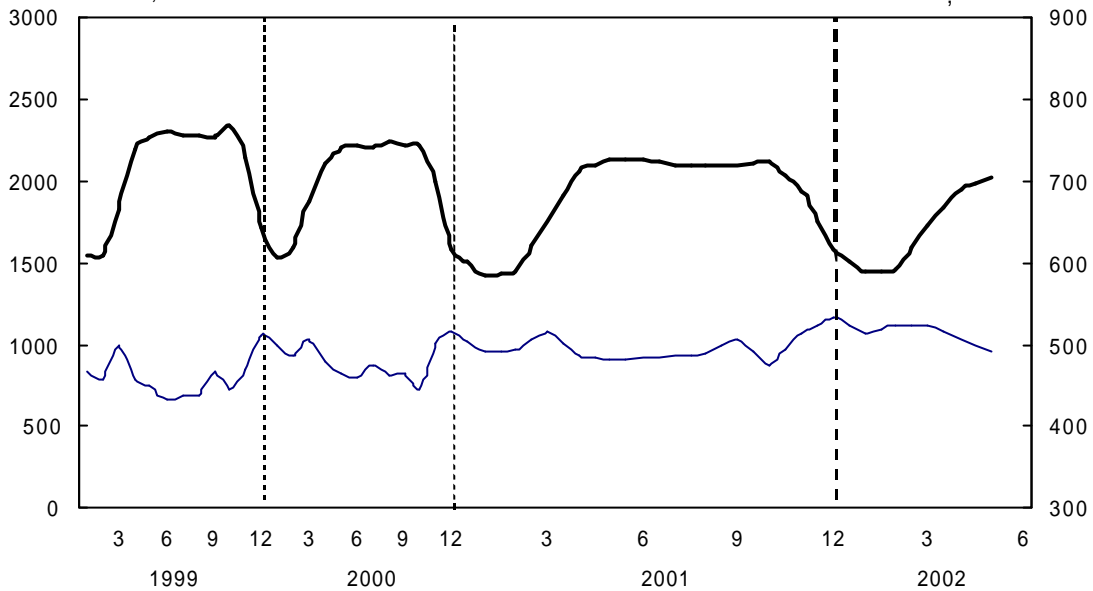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2001년		2002년	
				5월	1~5월	5월	1~5월
수출	농산물	1,142.5	1,251.9	105.5	491.1	124.8	558.1
	축산물	156.8	117.9	7.3	48.1	6.5	41.0
	소계(A)	1,299.3	1,369.8	112.8	539.2	131.3	599.1
수입	농산물	5,100.3	5,325.3	483.1	2,173.5	506.2	2,367.2
	축산물	1,679.4	1,466.5	107.4	553.3	167.1	801.6
	소계(B)	6,779.6	6,791.8	590.5	2,726.8	673.3	3,168.8
순수입	B-A	5,480.3	5,422.0	477.7	2,187.6	542.0	2,569.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1~5월 농축산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 과실류와 화훼류의 수출증가로 농산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했으나, 축산물 수출은 돼지고기 수출의 부진 등으로 14.8% 감소.
- (1~5월 농축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 농축산물 수입은 5월 6억 7,330만 달러로 4월의 6억 2,020만 달러에 비해 8.6% 증가하여 5월까지 누계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

3. 농림업취업자와 농외취업자

<농림업 취업자수>



<농가의 취업자 변동>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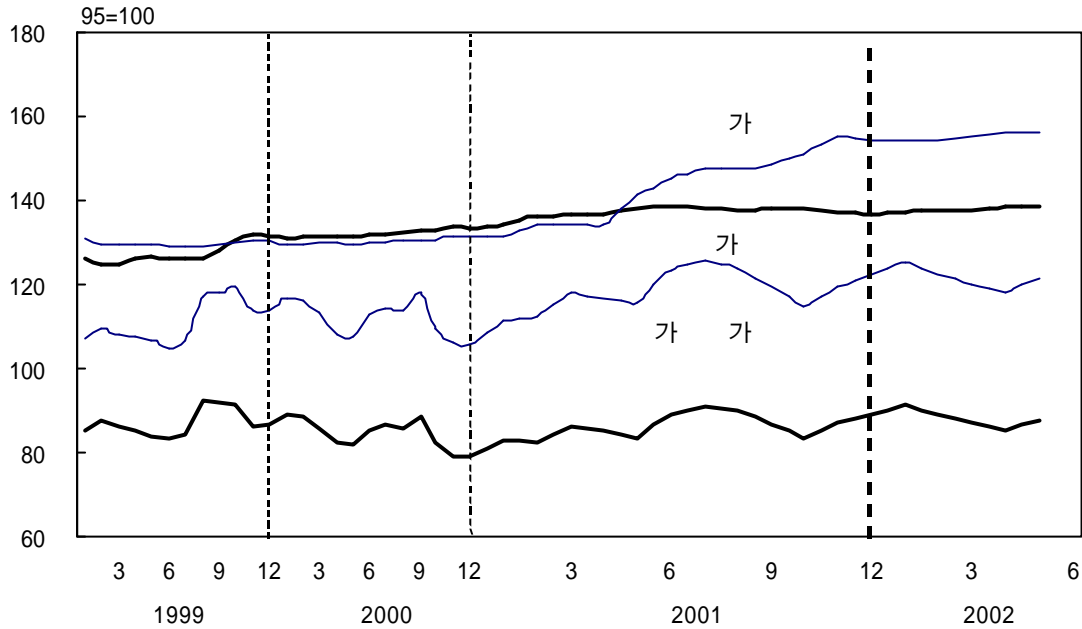
	2001				2002				
	2월	3월	4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농림업취업자	1,453	1,748	2,061	2,130	1,447	1,463	1,729	1,949	2,021
전년동월대비	△8.5	△7.0	△2.4	△3.4	2.0	0.7	△1.1	△5.4	△5.1
농외취업자	492	516	486	481	514	524	524	507	490
전년동월대비	1.2	2.2	1.5	3.7	4.9	6.5	1.6	4.3	1.9

자료: 통계청

- **(농가 농림업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5월 농가의 농림업 취업자수는 계절요인으로 전월대비 3.7% 증가한 202만 1천명을 기록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
- **(농가 농외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완만한 증가세 유지)** 5월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9.3% 감소한 49만명을 기록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9% 증가하여 완만한 증가세 유지.

4. 농촌물가

<농촌물가>



주: 투입재가격은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가격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치임.

<농촌물가지수 변화>

	1999	2000	2001년	2002년			
				2월	3월	4월	5월
농가판매가격지수	108.5	109.6	118.7	122.4 (8.8)	120.0 (1.7)	118.3 (1.4)	121.4 (4.8)
투입재가격지수	127.6	132.2	137.2	137.5 (0.9)	137.7 (0.7)	138.5 (1.2)	138.6 (0.2)
판매가격/투입재	87.0	84.6	86.5	89.0 (7.9)	87.2 (1.0)	85.4 (0.1)	87.6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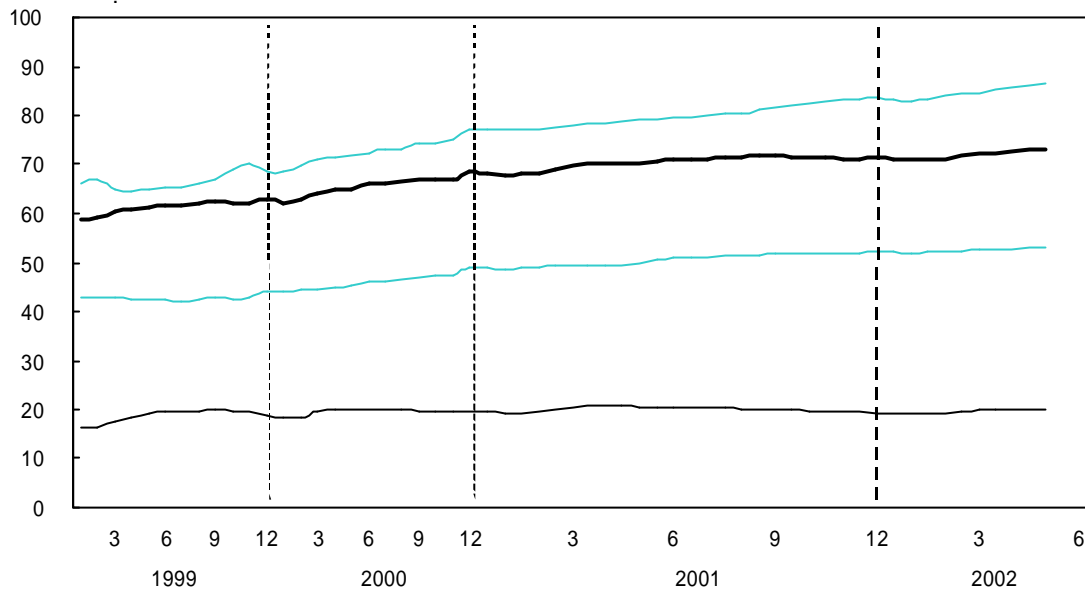
주: ()안 숫자는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농협

- (농가판매가격 5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 농업투입재 가격의 완만한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농가판매 가격은 전월대비 3.1p 상승한 121.4를 기록해 상승세로 반전.
- (농업경영조건 5월 들어 개선) 농가판매가격 상승으로 판매가격/투입재 비율은 전월보다 2.2p 상승해 5월 들어 농업경영조건 개선.

5. 농업금융

<농업금융 잔고>



<농업금융 잔고>

단위: 조원

		2001년 4월		2002년 4월		전년동월 대비(%)
		잔 고	전월차	잔 고	전월차	
대 출	상호금융	49.8	0.2	53.2	0.4	6.8
	정책자금	20.6	△0.1	20.0	0.0	△3.0
	계	70.4	0.1	73.2	0.4	3.9
예 금	상호금융	79.2	0.7	86.6	1.0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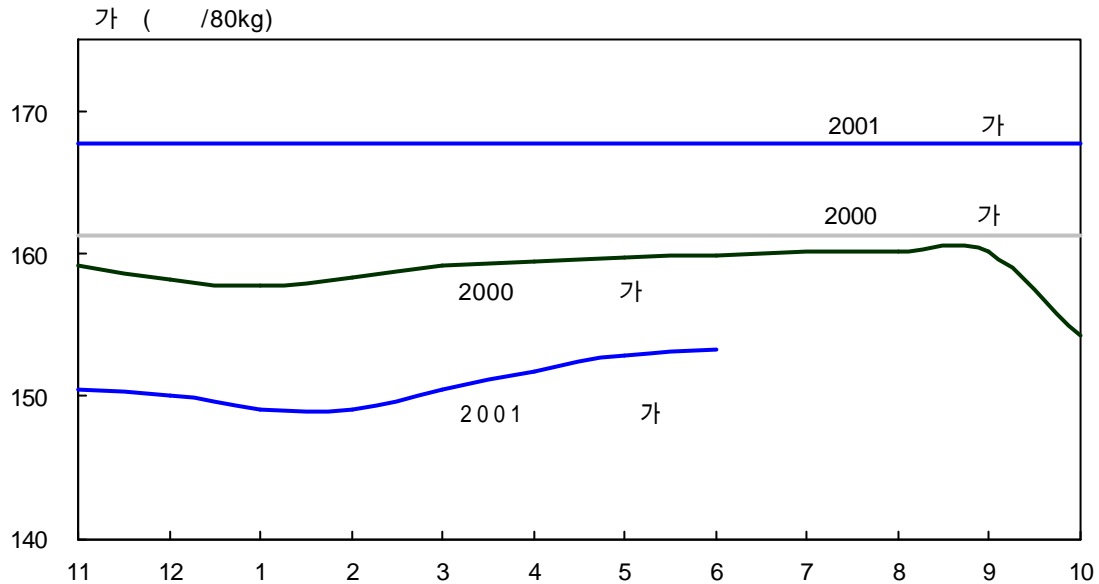
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업금융 총 대출액 전년동월 대비 3.9% 증가)** 5월 농업금융 대출액은 상호금융이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으나, 정책자금은 전월에 비해 3.0% 감소, 총 대출액은 전월보다 3.9% 증가한 73조 2천억.
- **(상호금융 예대비율 금년들어 지속적 하락)** 5월 상호금융 예금 잔고는 전월보다 1조 증가한 86조 6천억임에 반해, 대출은 전월대비 4천억이 증가해 예대비율은 4월에 이어 다시 0.7%p 하락.

6. 쌀 수급동향과 전망

□ 쌀 가격동향

<쌀 가격>



<쌀 가격 변동>

단위: 원/80kg, %

	2001년				2002년			
	3월	4월	5월	6월	3월	4월	5월	6월 ¹⁾
산지쌀가격	159,183	159,495	159,781	159,891	150,549	151,764	152,979	153,244
전월대비	0.5	0.2	0.2	0.1	1.0	0.8	0.8	0.2
전년대비	2.1	2.4	2.0	1.4	△5.4	△4.8	△4.3	△4.2
산지조곡가격	56,458	56,494	56,483	56,509	52,985	53,247	53,441	53,755
전월대비	0.3	0.1	0.0	0.0	1.1	0.5	0.4	0.6
전년대비	0.2	△0.2	△0.8	△2.0	△6.2	△5.7	△5.4	△4.9
산지/조곡 ²⁾	2.82	2.82	2.83	2.83	2.84	2.85	2.86	2.85

주 1) 5월 29일 가격, 2) 산지조곡가격(40kg) 대비 산지쌀가격(80kg)

자료: 농림부 식량정책과

- **(쌀 산지가격 상승세 유지)** 6월 산지 쌀 가격은 80kg 당 15만 3,244원으로 전월대비 0.2% 상승함으로써 완만한 상승세 유지.

- 2002년 2/4분기 계절 변동폭은 1.8%로써 전년동기 계절 변동폭 0.4%에 비해 확대됨

Ⅲ. 품목별 수급 동향

1. 채소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6월 채소류 가격은 고추, 대파, 감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았음.
- 7월 가격은 가뭄으로 인해 가격이 높았던 작년보다 대체로 낮으나 평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
- 금년산 마늘·양파 생산량은 작년이나 평년보다 적어 7월 가격은 작년동기보다 높을 전망.

<채소 도매가격 등락률 동향 (상품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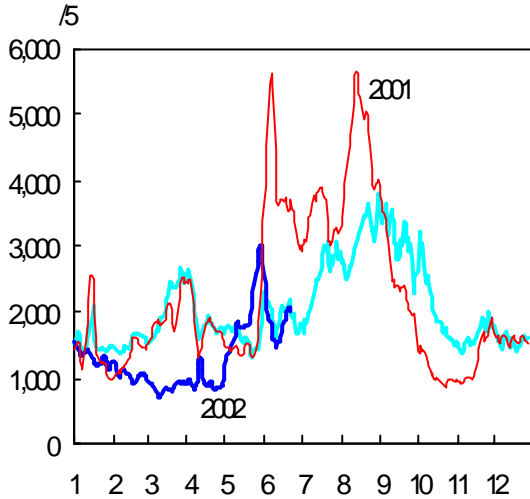
	1~5월 가격		6월 가격			7월 전망	
	작년 동기 대비	평년 동기 대비 ²	전월 대비	작년 동기 대비	평년 동기 대비 ²	전월 대비	작년 동기 대비
배추	$\Delta 34$	$\Delta 26$	27	$\Delta 48$	4	+	-
무	10	4	20	28	77	-	-
고추	$\Delta 16$	3	$\Delta 7$	$\Delta 39$	$\Delta 14$	약보합	-
마늘	55	8	$\Delta 21$	21	4	+	+
양파	$\Delta 38$	$\Delta 46$	37	14	15	+	+
대파	8	$\Delta 8$	$\Delta 28$	$\Delta 23$	$\Delta 8$	보합	-
쪽파	12	$\Delta 7$	46	25	20	-	-
양배추	$\Delta 9$	$\Delta 50$	21	$\Delta 16$	-	약보합	-
당근	$\Delta 5$	$\Delta 12$	46	$\Delta 29$	16	약보합	-
감자(수미)	$\Delta 15$	$\Delta 15$	$\Delta 54$	$\Delta 24$	$\Delta 15$	+	-
감자(대지)	$\Delta 29$	$\Delta 35$	$\Delta 44$	$\Delta 30$	$\Delta 14$		

1) 가락동시장 도매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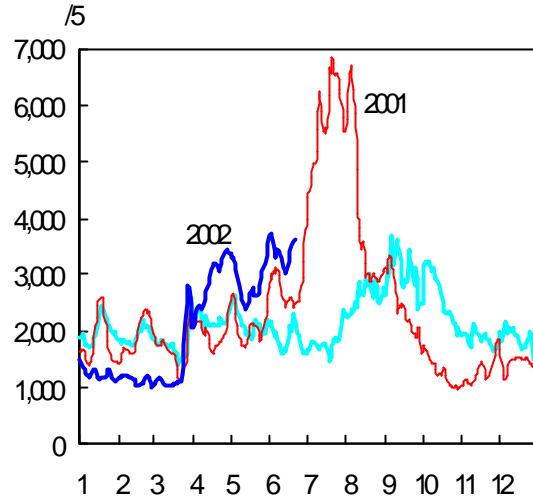
2) 평년은 1997~2001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나. 무·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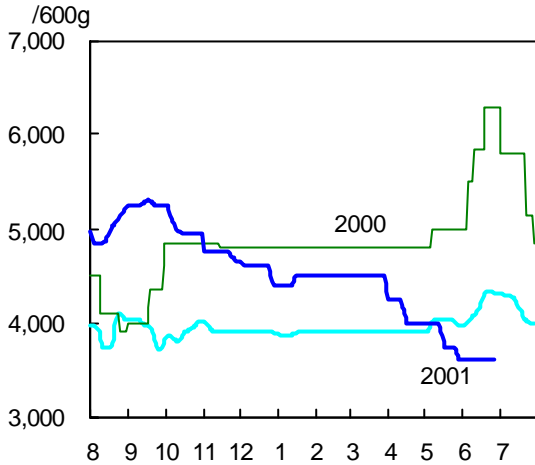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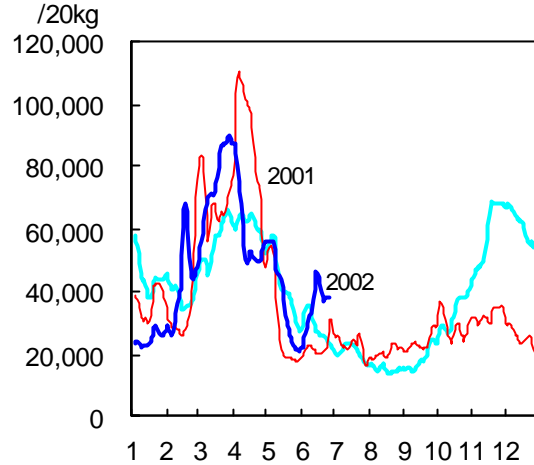
- 6월 배추 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무 가격은 작년 동기에 비해 30%, 평년 동기보다는 80% 높은 수준이었음. 이는 봄무 출하면적이 적었고, 작황도 나빠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 고랭지무·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3%,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평년 재배면적보다 다소 많을 전망.
- 고랭지배추 7월 출하대기물량이 가뭄이 심했던 작년보다 10% 이상 많아 배추 가격은 평년 수준 전망.
- 고랭지무 출하량이 작년보다 20% 이상 많으나, 고창, 당진 등지의 여름무 출하량이 적어 7월 무 가격은 가격이 크게 높았던 작년보다 낮으나 평년보다는 2배 가량 높은 강세가 지속될 전망.
- 8월에 출하될 고랭지무·배추의 출하예상량이 작년보다 많아 평년 작황을 유지할 경우 가격은 평년가격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전망.

나. 고추

< 건고추 도매가격 동향(화건, 상품)>



< 홍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건고추는 1996년 8월~20)01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이고, 홍고추는 1997년~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작년 8월~금년 6월말까지 고추의 공급량은 작년 동기보다 2% 적은 수준이고, 소비량은 작년 동기보다 3% 적은 것으로 추정됨. 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13% 많으며, 7월 중순부터 국내산 햇고추가 출하되기 시작하여 7월 평균 도매가격은 6월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작년 8월~금년 6월말까지 건고추 수입량은 12,354톤으로 작년 동기(8,180톤)보다 51% 많은 수준으로 국내가격이 하락추세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음. 이는 국내의 가공업체·요식업체에서 중국산 고추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 2002년산 재배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6% 증가한 7만 4,980ha 내외로, 생산량은 2001년산보다 7% 많은 19만 4,950톤 추정됨. 공급량은 이월량 9,000톤과 2001년산 수입량을 적용할 경우 작년보다 10%, 평년보다 15% 많은 24만 9,000여톤으로 추정됨. 따라서 가격은 작년산보다 35%, 평년보다 37% 낮은 상품 600g당 2,850원 내외가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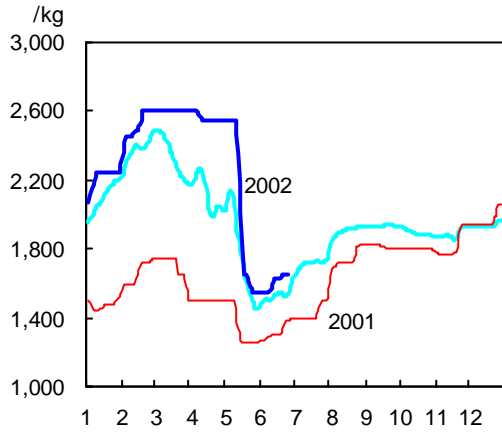
< 2002년산 고추의 공급 및 가격 전망 >

	생산량	수입량	이월량	총공급량	연평균가격
2001년산	180,120	45,100	0	225,220	4,400
2002년산	194,950	45,100	9,000	249,050	2,850
평년	191,540	-	-	215,700	4,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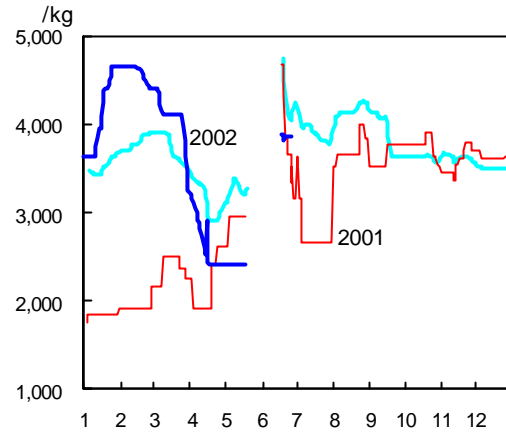
단위: 톤, 원/600g

라. 마늘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상품)>



<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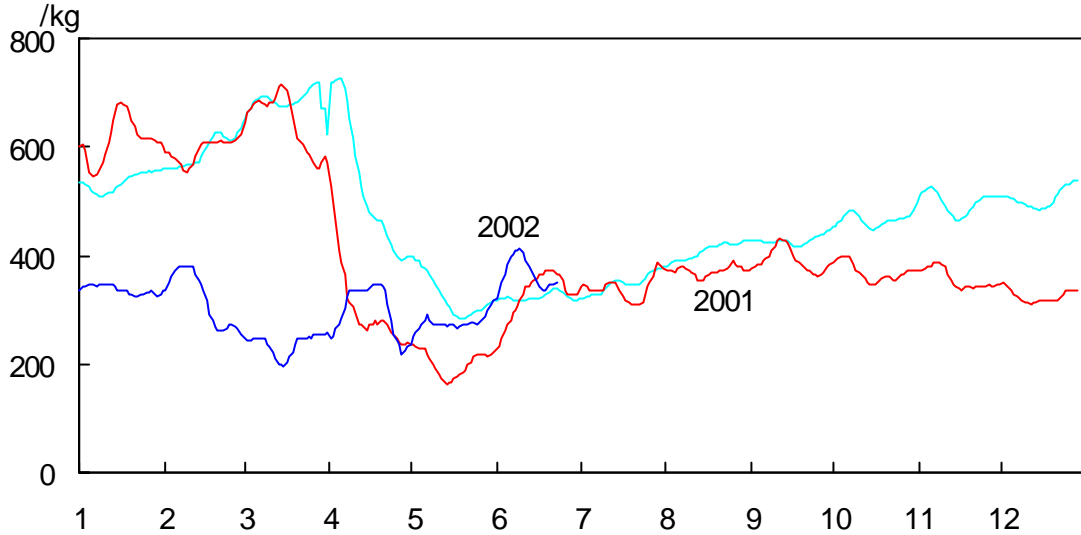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종 조사한 금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1% 감소한 3만 3,153ha으로 한지형은 18% 감소한 6,851ha이며, 난지형은 8% 감소한 2만 6,302ha임.
- 금년산 마늘의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1% 높은 10a당 1,115kg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월 조사치보다 2%, 5월 초순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치보다는 3% 낮은 수준임. 이처럼 예상단수가 감소한 것은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잦은 강우로 인한 병충해가 심하였기 때문임.
- 재배면적에 예상단수를 적용한 금년 생산량은 36만 3천톤~37만 4천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생산량보다 8~10%, 평년 생산량보다는 13~15% 적은 수준임. 한지형 마늘의 생산량은 작년보다 20% 감소한 5만 1천톤, 난지형은 7% 감소한 32만톤으로 추정됨.
- 이처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당분간 마늘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7월의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높고,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금년산 마늘 입고의향물량은 작년의 9만 3,800톤보다 약 7% 많은 10만톤 내외로 조사됨.

마.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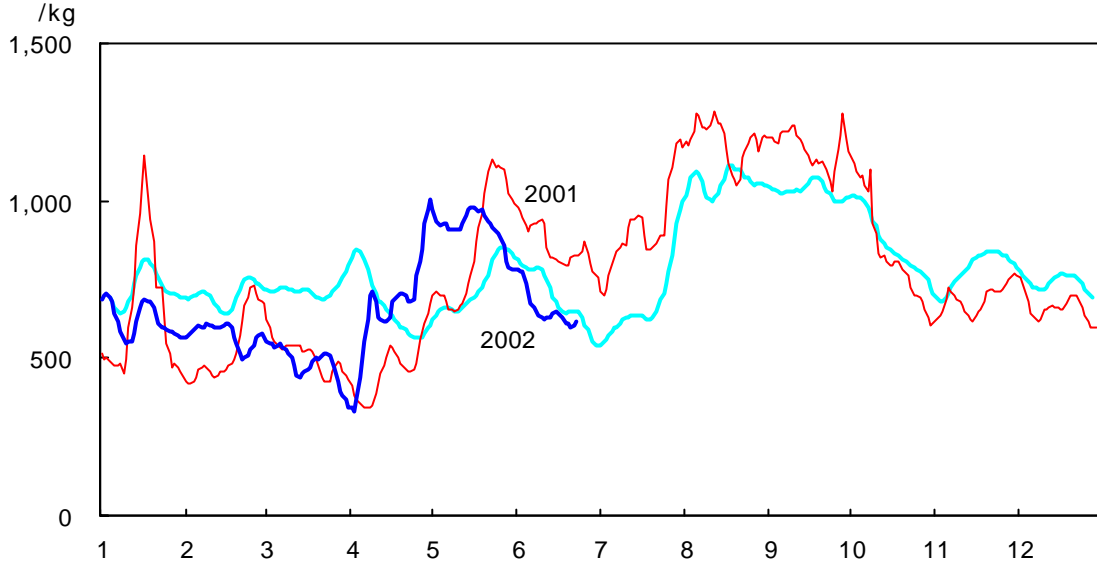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종 조사한 금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9% 감소한 1만 5,296ha으로 조생종은 25% 감소한 2,499ha, 중만생종은 18% 감소한 1만 2,797ha임.
- 6월에 조사된 양파 단수는 4월말과 5월초의 잦은 강우로 작황이 예상보다 나빠져 작년보다 4%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89만톤~90만 9천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생산량보다 15~17% 적지만, 평년 생산량과는 비슷한 수준임. 조생종 양파의 생산량은 작년보다 16% 감소한 14만톤, 중만생종은 17% 감소한 75만 7천톤 내외로 추정됨.
- 금년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이 작년보다 1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7월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높을 전망.
- 금년산 양파 입고의 향물량은 작년의 45만톤보다 10% 이상 적은 40만톤 내외로 조사됨.

바.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비주산지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고 기상 호조로 단수도 높아 6월 출하량이 많았음. 6월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640원(중품 55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8%, 작년 동기보다는 23% 낮은 수준.
- 7~8월의 여름대파 출하량이 11%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강원도 고랭지대파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2배가량 증가하여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낮은 상품 kg당 700~1,000원 내외 전망.
- 겨울대파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2% 감소에 그쳐 지난달 조사치(6% 감소)보다 덜 감소한 수준.

<대 파 출하예상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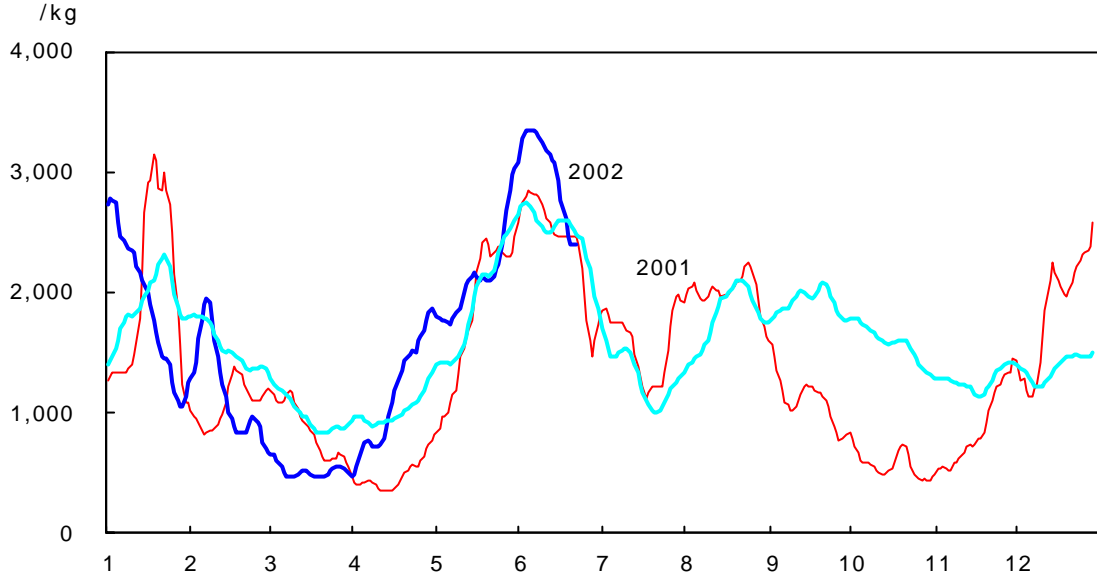
출하시기	지역						단위: %
	경기·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부산·경남	전체
여름	15.4	44	-3.6	0.2	0.0	7.1	8.4
가을	-5.9	-1.8	2.8	8.1	-2.5	2.2	-0.4

<겨울대 파 정식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전남	부산·경남	전체
-1.9	-3.1	-2.2

사. 쪽파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단경기인 6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어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3,000원(중품 2,45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20%, 작년 동기보다는 25% 높은 수준.
- 7~8월의 여름쪽파 출하예상면적이 작년보다 4% 많으나, 예상단수가 2% 적어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약간 낮을 전망.
- 9~10월의 가을쪽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3% 적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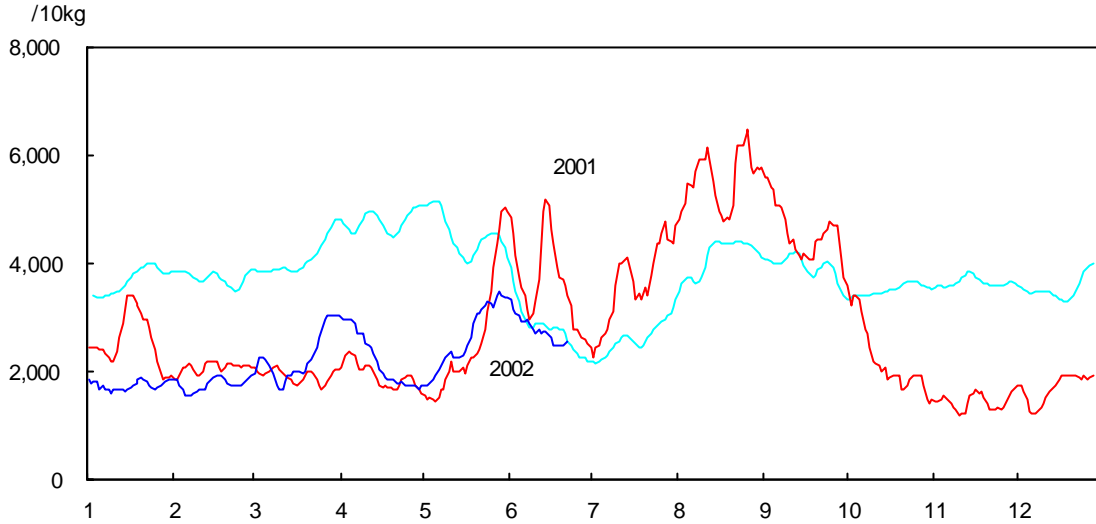
<쪽파 출하예상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출하시기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여름	-	5.2	3.0	-	-	3.9
가을	-7.2	-2.0	-2.5	-3.1	-7.7	-2.7

아.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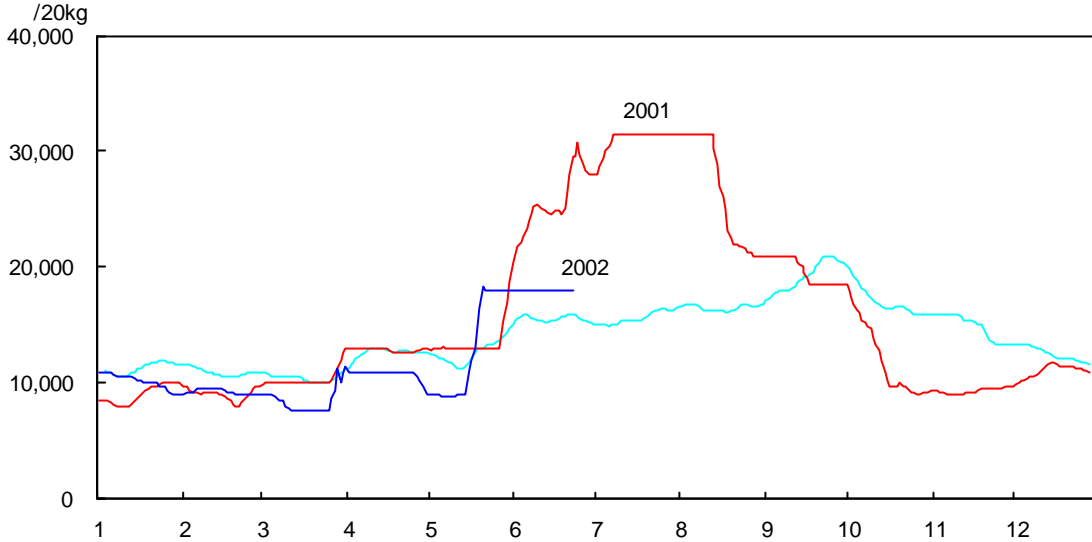
- 양배추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6월 상순 3,250원에서 하순에는 2,510원으로 하락세를 보임, 6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당 2,880원으로 평년 동기와 비슷하나, 작년 동기보다는 16% 낮은 수준, 7월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5% 많아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낮을 전망.
- 충청지역이 주산지인 가을양배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강, 배추 등으로 작목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을양배추 정식의향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7월	8월	전체
-1.5	-3.3	-2.2

자.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6월 당근의 상품 20kg당 평균도매가격은 18,00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16% 높았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29% 낮은 수준. 7월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7% 많아 가격은 가뭄이 심했던 작년 동기보다 크게 낮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다소 높을 전망.
- 7~8월에 파종될 가을당근 파종의향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조사였으며, 무, 대파 등으로 작목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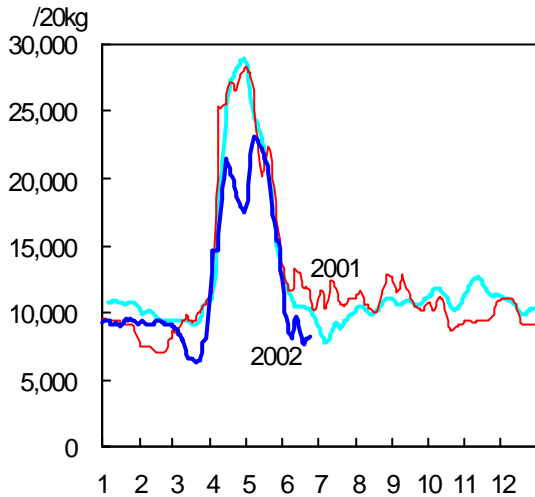
<가을당근 파종의향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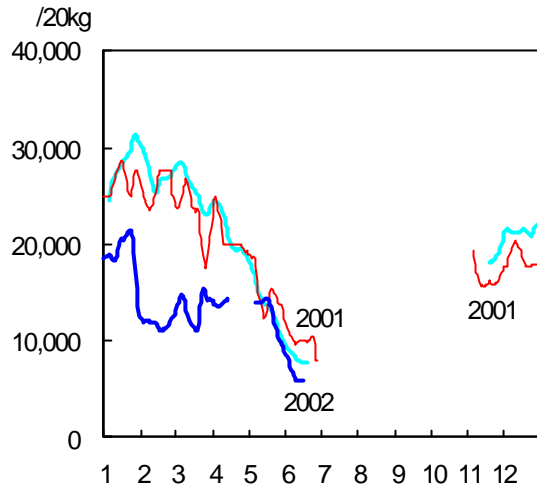
충청	경북	경남	전체
1.9	-36	-42	-14

차. 감 자

<감자 도매가격 동향 (수미, 상품)>



<감자 도매가격 동향 (대지,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금년 노지봄감자 재배면적 조사결과, 작년보다 2% 증가하여 재배면적은 15,250ha로 추정됨.
- 노지봄감자(수미)의 7월 출하예상량은 작년에 비해 10% 적으나, 7월말부터 준고랭지감자가 출하되기 때문에 7월의 수미 가격은 상품 20kg당 10,000원 내외로 6월보다 약간 높고, 작년보다는 10% 낮을 것으로 전망.
-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하고, 금년 대지 가격이 낮아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노지봄감자 재배면적의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체	
-5.6	-4.5	-1.1	8.7	4.9	17.4	-0.1	-0.4	1.9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의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전체	
3.1	-6.4	7.4	-16.6	-11.9	

2. 과채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6월 과채류 도매가격은 오이, 호박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이는 출하면적이 적었고 단수도 낮아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적었기 때문임.
- 7월에 출하될 수박, 참외, 토마토의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적어 도매가격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이, 호박의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가격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과채류의 6월 정식의향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7월 정식의향면적은 수박, 참외는 늘고 토마토, 호박은 줄어듦 것으로 전망됨.

<지난해 동기대비 과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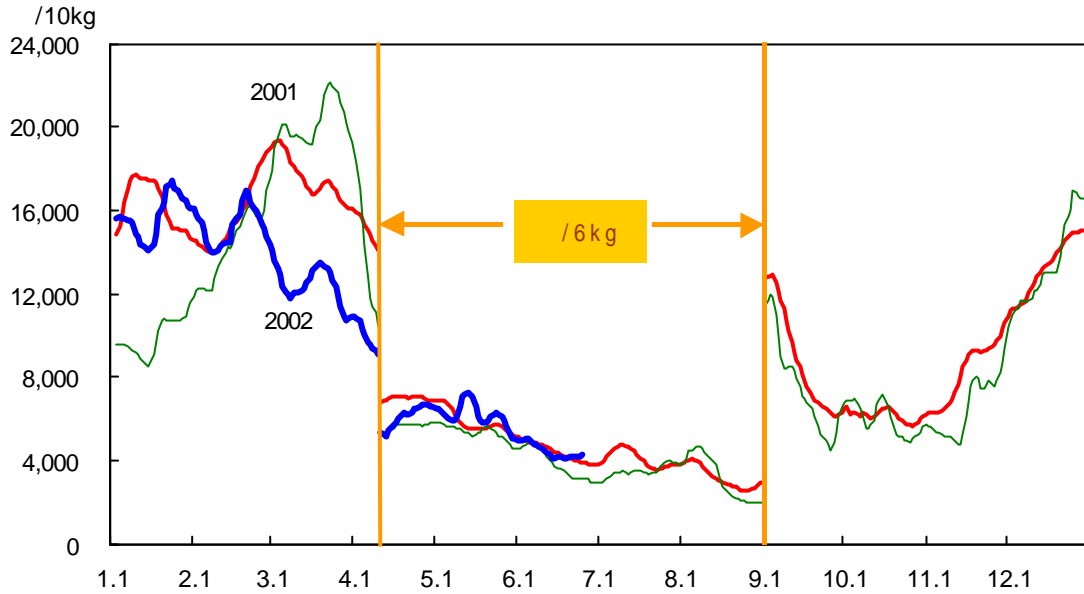
단위: %

	1~4월 가격		5월 가격		6월 가격	
	작년 동기대비	평년 동기대비	작년 동기대비	평년 동기대비	작년 동기대비	평년 동기대비
수박	2	△32	15	4	19	3
참외	2	0	48	14	37	33
토마토	56	71	35	45	14	33
방울토마토	43	17	33	6	63	33
호박(쥬키니)	△17	△19	85	106	△52	△20
호박(애호박)	7	△10	56	41	△18	4
오이(취청)	3	△6	47	65	△31	△20
오이(백다다기)	4	△12	14	25	△13	1
메론	27	25	24	20	14	12
가지	32	9	22	13	△23	△15
딸기	6	△18	△23	△10	-	-

주 : 평년은 1997~2001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나.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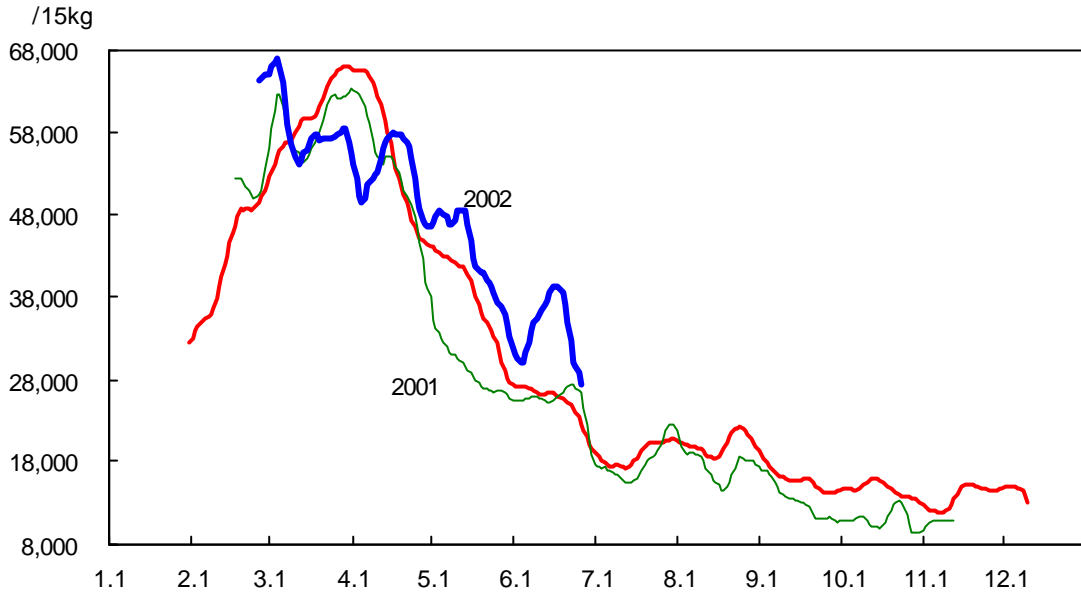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9월~익년 4월 11일~8월 31일까지는 상품 6kg 개당 수치임.

- 6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가격은 지난해(상품 3,748원/6kg)보다 19% 높고, 평년(상품 4,343원/6kg)보다 3% 높음.
- 7월 출하예상면적은 지난해 가격이 좋지 않아 12% 줄어들고, 단수는 6월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1~2% 높을 것으로 예상됨. 7월 출하예상량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 7월 출하량이 감소하고 품질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 6kg개당 도매가격은 지난해 3,750원보다 높고 평년 4,340원과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7월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 9~10월 가격이 평년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다.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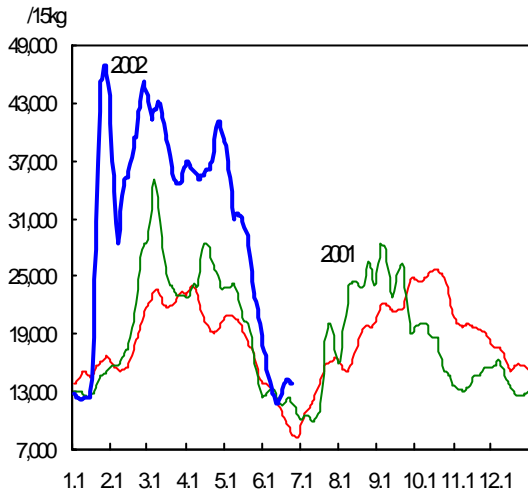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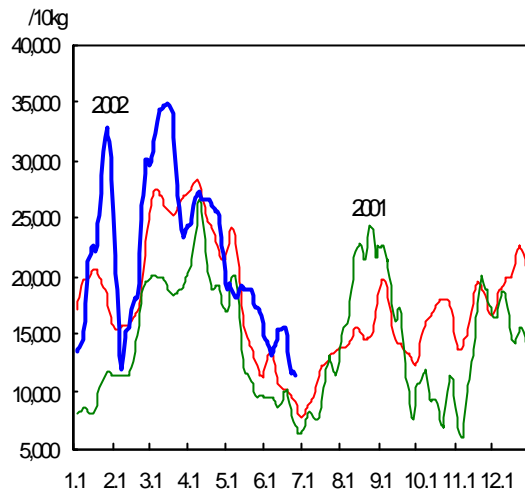
- 6월 참외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적어 가격은 지난해(상품 24,860원/15kg)보다 37% 높고, 평년(상품 25,523원/15kg)보다는 33% 높은 수준임.
- 7월 출하예상면적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 이는 지난해 도매가격이 좋았으나 주산지인 영남지역에서 2001년 대설피해면적을 복구하지 못한 농가가 많았고, 대규모 경영보다는 상품성위주로 출하하려는 농가가 많기 때문임.
- 참외 주산지인 성주를 중심으로 대과보다 품질위주의 생산을 하기 위해 홍토좌 대목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7월에 출하될 참외단수 또한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
- 7월에 출하될 물량은 단수가 낮고 면적도 줄어 지난해보다 5~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도매가격은 지난해(18,140원/15kg)와 평년(19,218원/15kg)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라. 토마토

<일반 토마토 도매가격, 원/15kg>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원/1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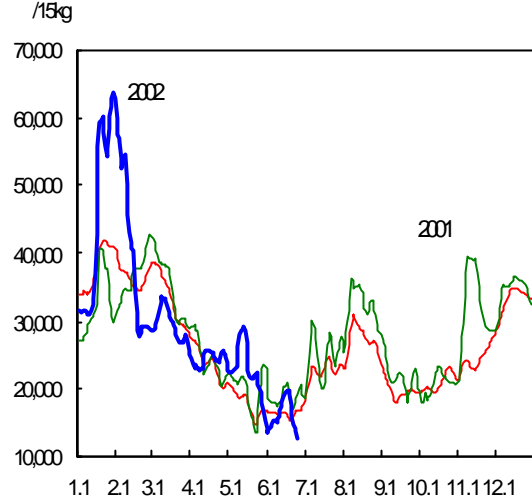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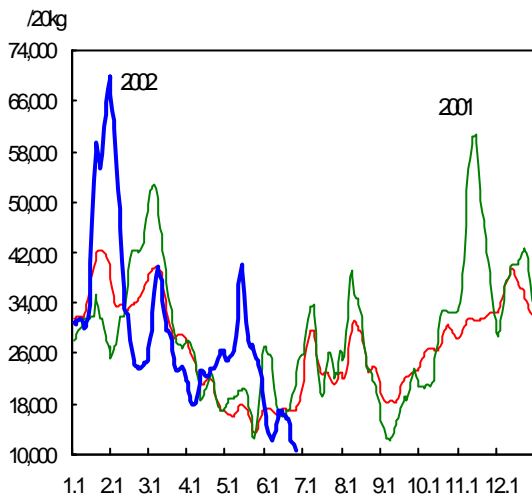


- 6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14% 높고, 방울토마토는 63% 높았음. 이는 기후의 영향으로 예년과 달리 6월 상순 주 출하지역인 부산지역과 중·하순 출하지역인 춘천지역의 출하량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임.
- 6~7월 일반토마토 출하예상면적은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지난해 6월 가격이 전년에 비해 31%, 7월은 17% 높았으며, 수요증가로 올해 토마토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강원지역과 충북 충주, 전남 담양 등에서 재배를 연장하였기 때문임. 6~7월 방울토마토 출하예상면적은 지난해보다 4~10%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6~7월 현재의 시세가 좋아 주 출하지역인 논산, 부여, 김제에서 재배를 연장하였기 때문임.
- 7월 일반토마토와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품질도 좋지 않아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6월 일반토마토의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 9월 가격이 좋아 10%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월은 수확시기인 지난해 10월 가격이 좋지 않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6월 방울토마토 정식의향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월은 지난해 10월 가격이 전년과 평년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었음.

마. 오이

<취청 도매가격, 원/20kg>

<백다다기 도매가격, 원/15kg>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6월 출하물량은 지난해보다 많아 도매가격은 지난해(백다다기 상품: 1만 6,860원 /15kg, 취청 상품: 1만 4,750원/20kg)보다 13~31% 낮은 수준임.
- 7월의 취청 출하예상량은 지난해보다 8% 많아 7월 도매가격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백다다기 출하예상면적이 지난해보다 높고 단수도 높아 도매가격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7월의 취청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백다다기 정식의향면적은 7월 상·중순에 1~4% 늘어나고, 하순에는 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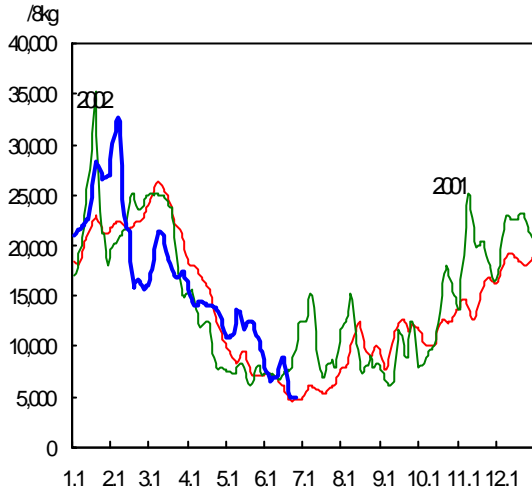
<지난해대비 7월 출하량 및 정식의향면적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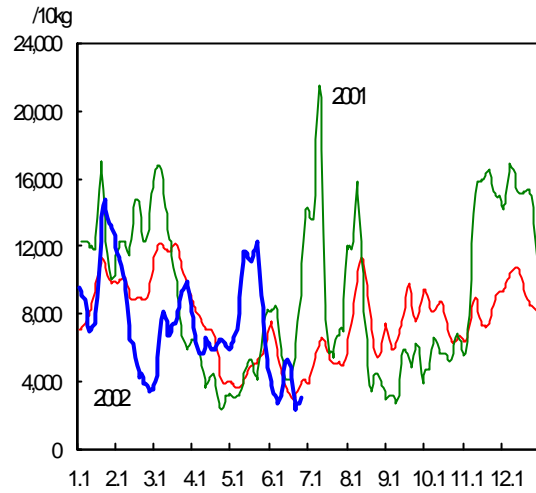
	예상출하량	정식의향면적
취 청	8.2	0.5
백다다기	6.9	0.9

바. 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원/8kg>



<쭈키니 도매가격, 원/10kg>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6월 출하물량은 지난해보다 많아 도매가격은 지난해(애호박: 7,190원/8kg, 쭈키니: 3,690원/10kg)보다 18~52% 낮은 수준임.
- 7월에 출하될 애호박 물량은 출하면적이 늘고 단수가 높아 지난해보다 6%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도매가격은 평년보다는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됨. 7월에 출하될 쭈키니의 단수는 낮지만 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출하물량이 지난해보다 25% 많아 도매가격은 평년보다도 낮을 것으로 전망됨.
- 7월의 애호박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2% 줄어들고, 쭈키니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지난해대비 7월 출하량 및 정식의향면적 증감률>

단위: %

	예상출하량	정식의향면적
애호박	5.5	△1.5
쭈키니	24.9	△2.2

3. 과일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6월 배·포도·복숭아 공급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50% 이상 많았으며 가격은 지난해보다 20~30% 낮은 수준. 공급량 증가폭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은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기인.
- 복숭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6%(3만톤) 증가하며 포도와 하우스감귤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름 과일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많을 전망. 공급 증가로 인해 복숭아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지만, 경기 회복과 과채류 공급 감소에 따른 수요 증가로 포도·감귤 가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단수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16%(2,330ha) 많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10%(2~4만톤) 많은 45만톤 수준 전망. 소비촉진, 수출, 출하조절 등 대책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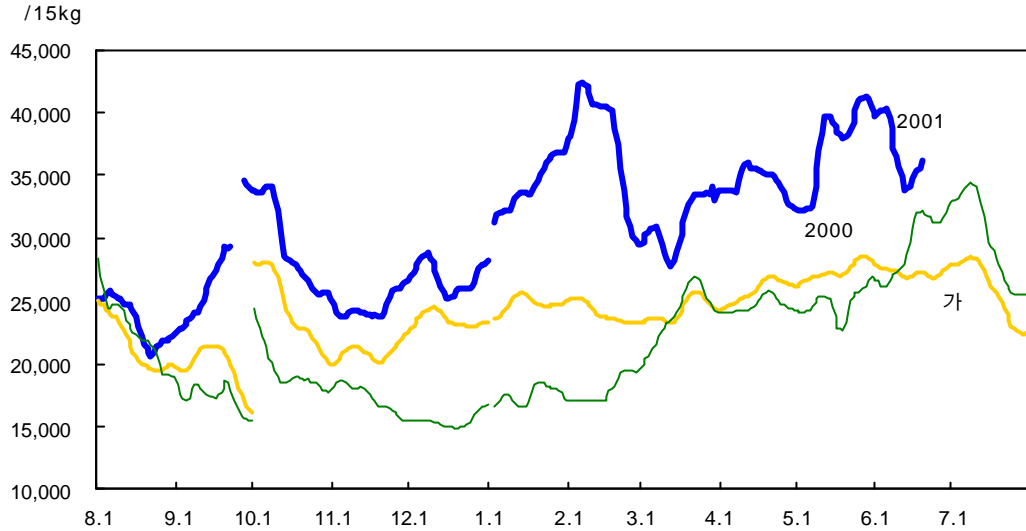
<주요 과일의 5~6월 가격변동률>

단위: %

	5월 가격		6월 가격	
	작년대비	평년대비	작년대비	평년대비
사과	51	36	27	36
배	△18	△ 32	△ 28	△ 37
포도	△14	△15	△18	△ 32
감귤	△ 20	△ 31	△9	△9
복숭아	-	-	△ 23	-
오렌지	23	△3	△11	-

나. 사과

<사과 가격동향>



주: 8~9월은 쓰가루, 10~약년 7월은 후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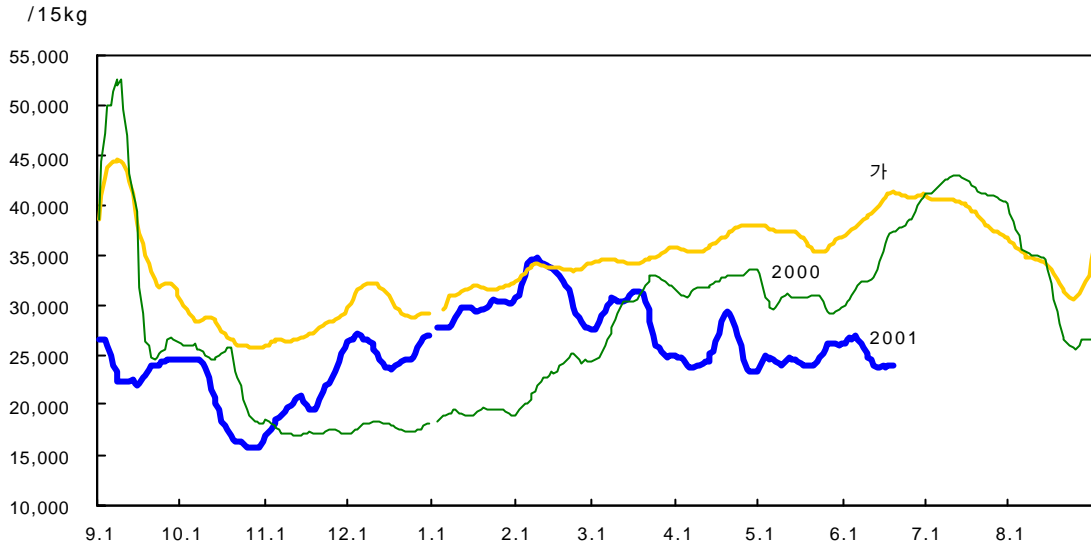
- 후지 가격은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까지 하락하였으나 6월 중순이후 다시 상승, 6월 가격은 상품 15kg당 3만 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0% 높은 수준.
- 개화량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많고 착과상황도 지난해보다 양호.
- 사과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3% 감소한 18,600ha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단수가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 많은 41만톤 수준으로 전망.

<사과 생산 전망>

	2001	2002	2002/2001 증감률(%)
성목면적(ha)	19,186	18,600	-3.1
생산량(천톤)	404	410	1.5

다. 배

<배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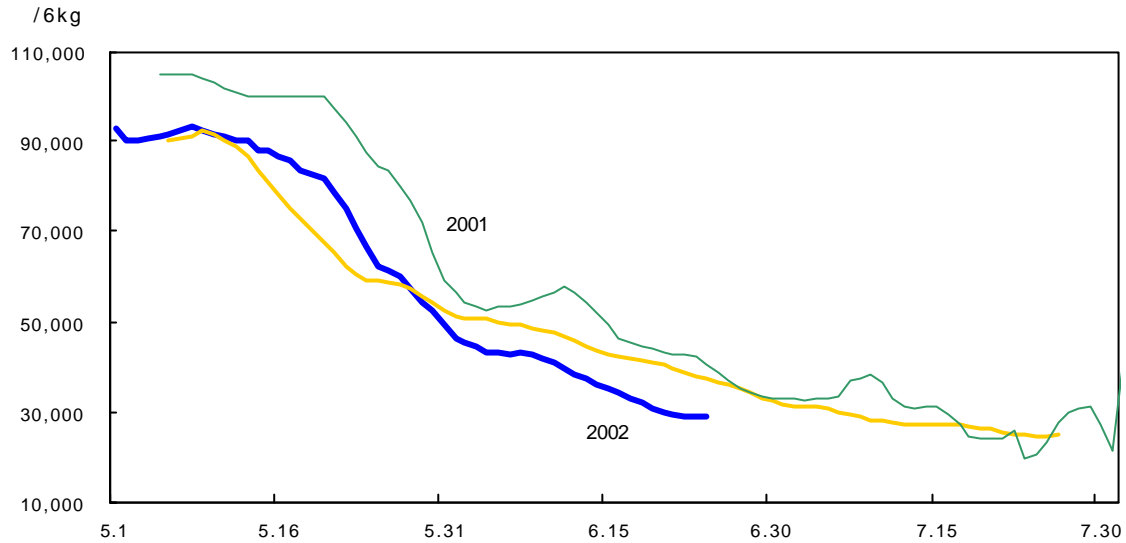
- 6월 상순 이후 하락한 신고가격은 지난해보다 25% 낮은 상품 15kg당 2만 5천원에서 보합세.
- 저온, 서리, 강풍 등으로 인해 착과가 불량한 지역이 많음. 특히 호남 지역에서 착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착과상태가 지난해보다 불량하여 단수는 감소할 전망이지만, 성목면적이 16%(2,330ha) 증가하여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10%(2~4만톤) 많은 45만톤 수준 전망.

<배 생산 전망>

	2001	2002	2002/2001 증감률(%)
성목면적(ha)	14,782	17,100	15.7
생산량(천톤)	417	443~458	62~9.7

라. 포도

<포도 가격동향>



주: 4~5월은 달라웨어, 6월~10월은 캠벨얼리 11~익년 3월은 세단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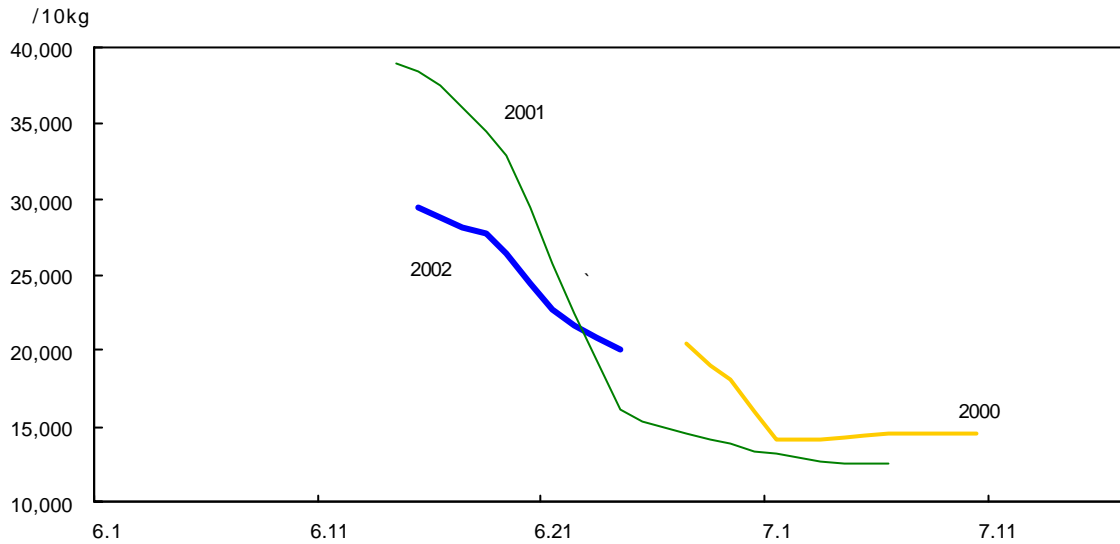
- 가온재배한 포도가 크게 늘어 6월 포도가격(캠벨얼리, 상품)은 지난해보다 20% 낮음.
- 하우스포도 품질은 좋은 편이며 노지포도 생육상황은 지난해 수준, 개화기에 비가 자주 내려 꽃떨이 현상과 병충해가 다소 발생하였음.
-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1%(210ha)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단수가 지난해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포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 적은 45만톤 수준일 전망.

<포도 생산 전망>

	성목면적(ha)	성목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01	22,146	2,048	453
2002	21,940	2,050	450
'02/'01 증감률(%)	-0.9	0.2	-0.8

마. 복숭아

<복숭아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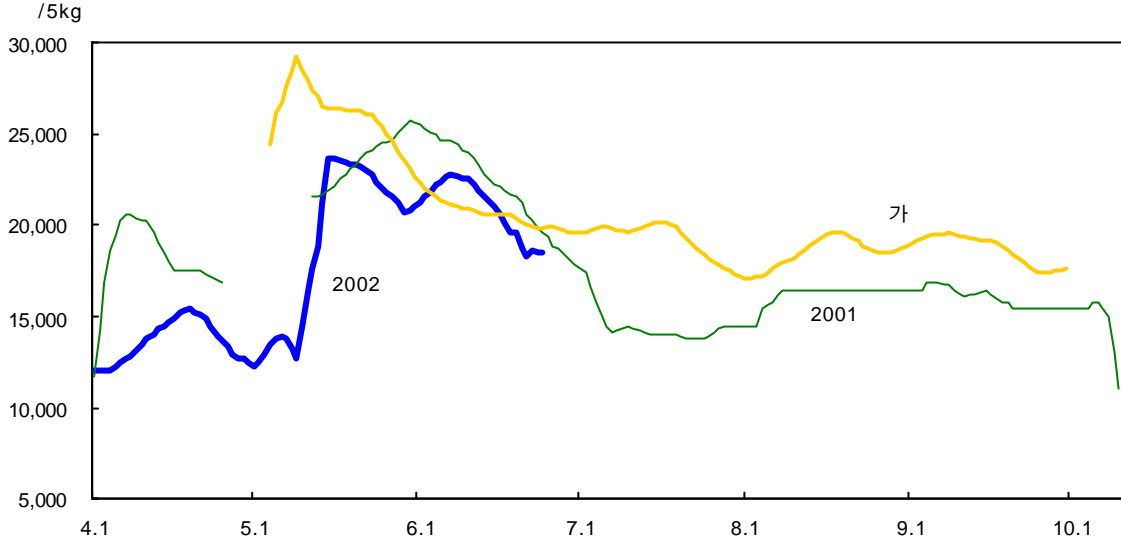
- 6월 복숭아(암킹) 가격은 지난해보다 20% 낮은 상품 10kg당 2만 8천원 수준.
- 복숭아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8,900ha인 것으로 추정되고 성목단수가 4~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6% (2만 6천톤) 많은 19만톤 수준 전망.
- 출하량은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사이에 크게 늘어날 전망.

<복숭아 생산 전망>

	성목면적(ha)	성목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01	8,062	2,063	166
2002	8,900	2,160	192
'02/'01 증감율(%)	10.4	47	15.6

마. 감귤

<감귤 가격동향>



- 6월 하우스온주 가격은 5kg당 2만 1,200원으로 지난해보다 9% 낮은 수준. 이는 조기가온재배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 7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3% 감소하고 8월에는 14% 증가할 전망.
- 노지감귤의 꽃수는 지난해보다 57% 적고, 같은 해결이해인 재작년보다는 10% 많음. 재배면적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노지온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적겠으나 재작년(52만 5천톤)보다는 많을 전망.

<감귤 개화상황>

	금년 (천개)	대비(%)		
		작년	재작년	평년
10a당 꽃수	279	-56.6	10.5	-320

4. 축산

가. 개황

- 5월 한우 도축두수는 전월에 비해 1% 증가하여, 구제역 발생이 쇠고기 소비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지 송아지 가격 강세로 암소사육농가들의 번식의향은 전년에 비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4월 22일부터 실시한 착유두 도태정책으로 초임만삭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6월 20일 현재 전월보다 2.5% 하락하였음. 그러나 전년 동기보다 8% 상승하였음.
- 6월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로 수요는 증가한데 반해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과 이동제한지역 수매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6월(1~25일) 성돈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4.1%, 평년 동기보다 7.4% 상승하였음.
- 1~5월 계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9.3%, 평년에 비해 2.2% 하락하였음. 6월 계란가격(1~25일)은 전년 동기대비 1.3% 하락하였으며, 평년과 비교하여 5.1% 상승한 728원으로 나타남.
- 육계의 경우 질병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6월 산지 가격(1~25일)은 5월 보다 28.0% 하락한 kg당 986원임.

<지난해 및 평년 동기 대비 가격의 증감률>

단위: %

	1~5월 가격		6월 가격	
	지난해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¹⁾	지난해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²⁾
한우(큰수소)	34.8	52.8	23.6	41.4
한우(수송아지)	42.0	102.8	23.7	97.5
초임만삭우	17.6	34.2	8.7	24.3
돼지	20.2	6.6	4.1	7.4
육계	△2.7	8.1	△16.4	△6.4
계란	△9.3	△2.2	△ 1.3	5.1

주 : 1. 평년은 1997~2001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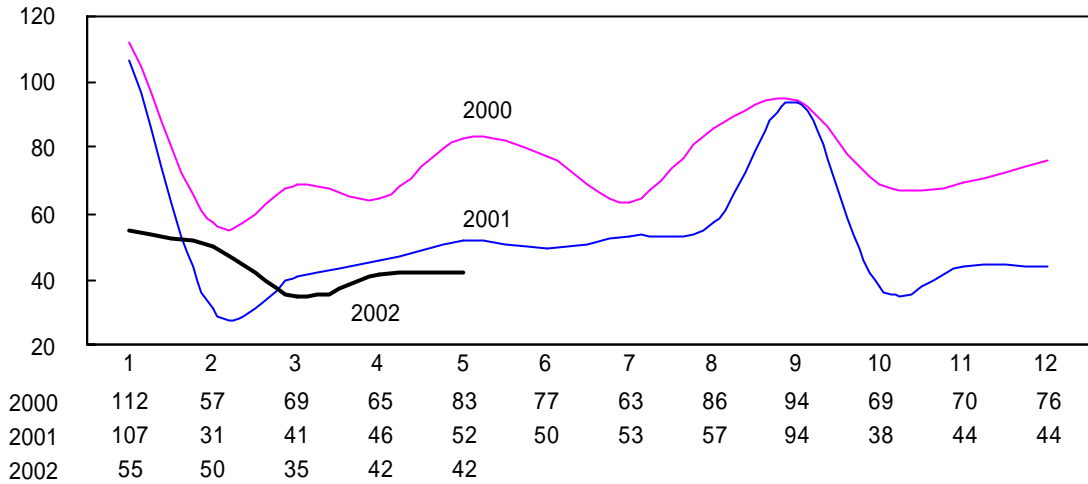
2. 6월 가격은 1~25일까지의 평균가격임.

3. 한우가격은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가축시장 폐쇄로 5월가격은 1~12일까지의 평균가격, 6월가격은 1~3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나. 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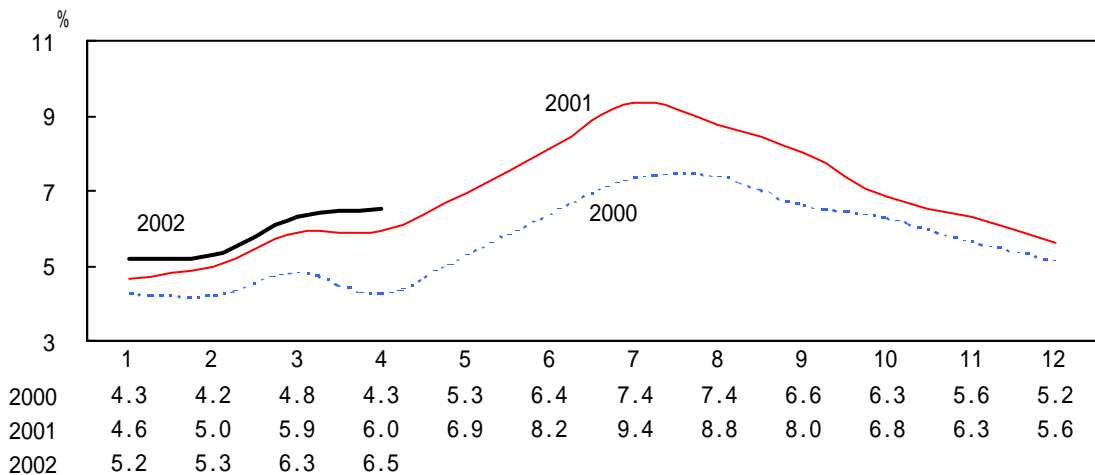
<한우 월별 도축현황>



자료: 농림부.

- 1~5월 한우 도축두수는 22만 3천두로 전년 동기기간에 비해 19% 감소하였음. 5월 한우 도축두수는 4만 2천두로 전년 동월에 비해 19% 감소, 전월에 비해 1% 증가하였음.
- 산지 송아지가격 강세로 2002년 한우 월간 인공수정률은 전년 동월에 비해 계속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번식의향은 작년에 비해 점차 커지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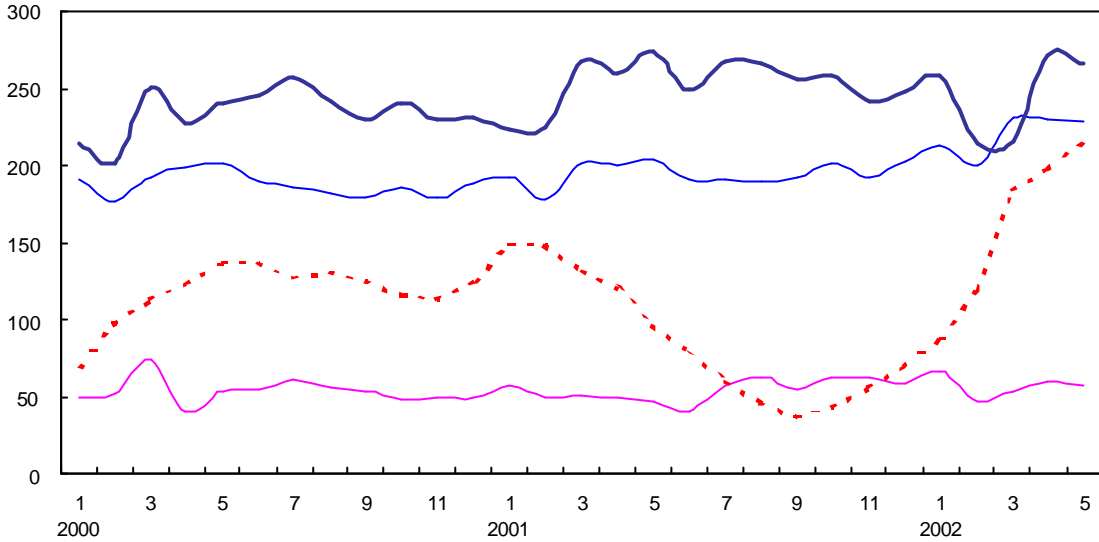
<한우 월간 인공수정률 변화 추이>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다. 젓소

<원유 수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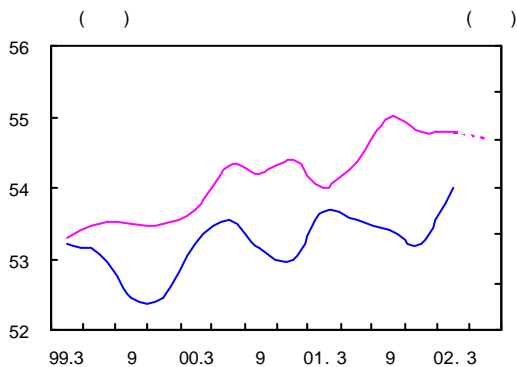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4~5월 원유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13.5% 증가한데 반해 소비량은 0.9% 증가에 그쳐 원유재고량은 전년 동월보다 22.9% 증가한 21만 6천톤임.
-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경우 2002년 6월 젓소 총 사육두수는 착유우 도태 정책 실시로 3월보다 0.2% 감소한 54만 7천두로 추정됨. 2001년 8~10월 인공수정실적이 전년 동기와 비슷하여 2002년 6~8월에 태어날 송아지 두수는 2001년 6~8월과 비슷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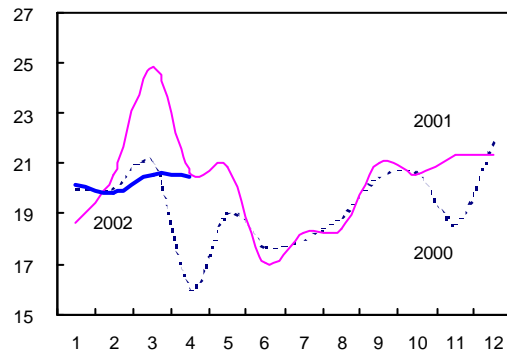
<젓소 사육두수>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2002, 6월은 관측센터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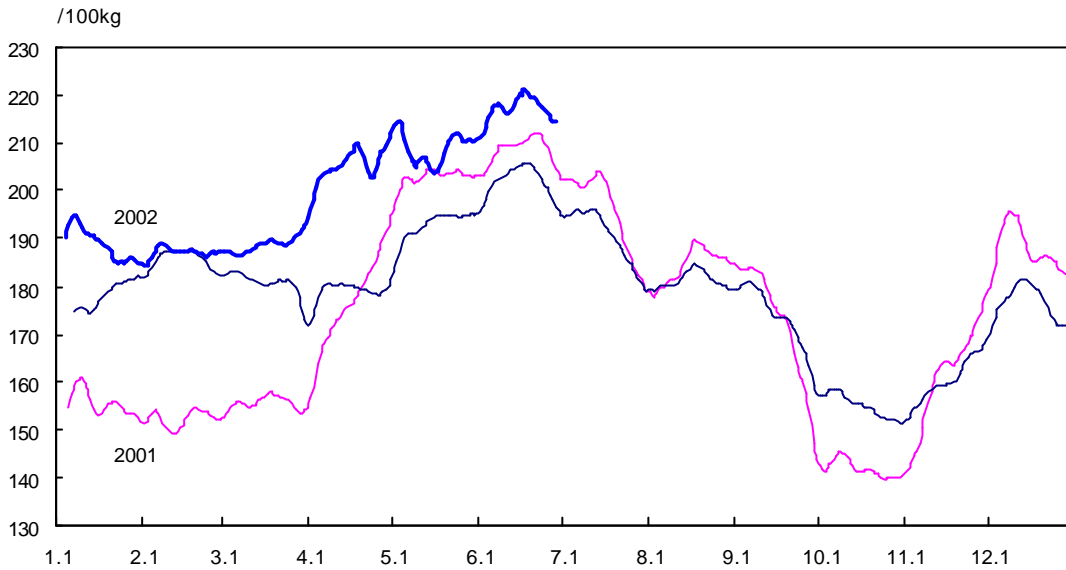
<월별 인공수정실적>

자료: 농림부.



라.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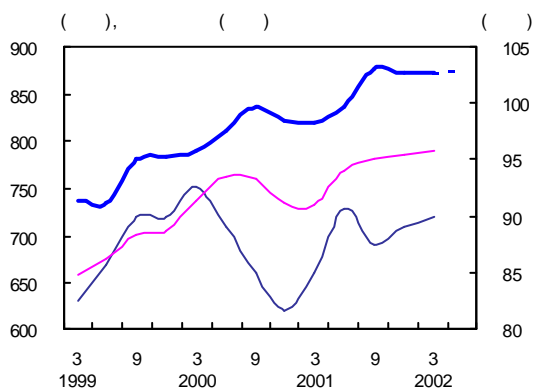
<성돈 산지가격동향>



주: 5일이동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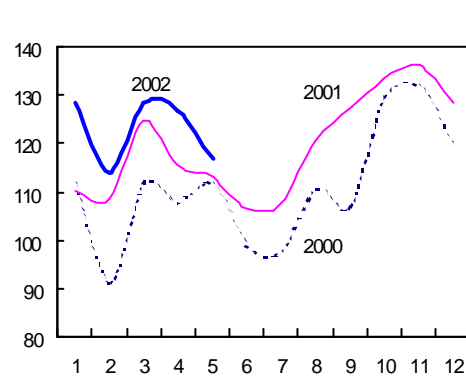
- 쇠고기 가격에 상승에 의한 대체수요, 6월 월드컵, 지자체 선거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6월 성돈(100kg) 산지가격은 상승하였음. 6월 25일 현재 평년(19만 9천원)보다 7.7% 상승한 21만 4천원임.
-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경우 2002년 6월 사육두수는 3월보다 0.8% 증가한 879만두임. 돼지고기 수요증가가 7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지가격은 20~21만원으로 전망됨.

<돼지 총두수와 모돈수>



자료 : 농림부, 가축통계('02, 6월은 관측센터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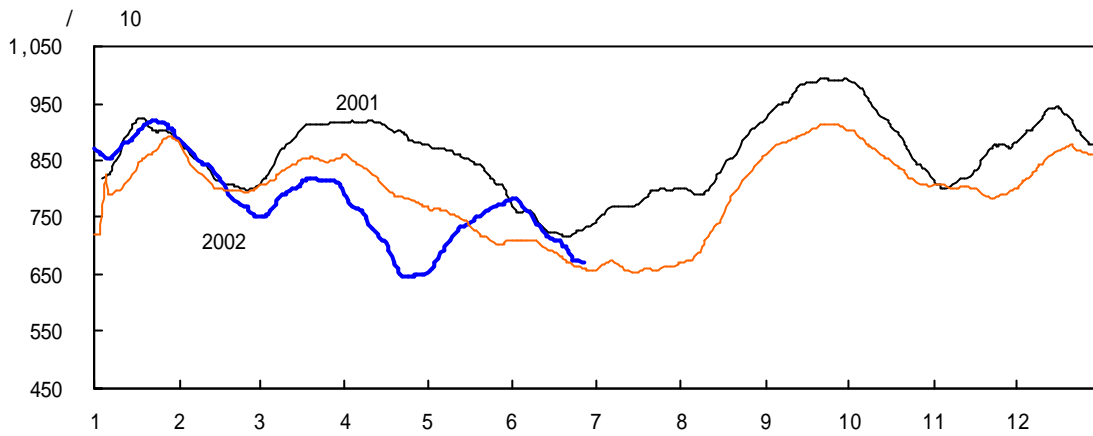
<월별 도축두수>



자료: 농림부.

마.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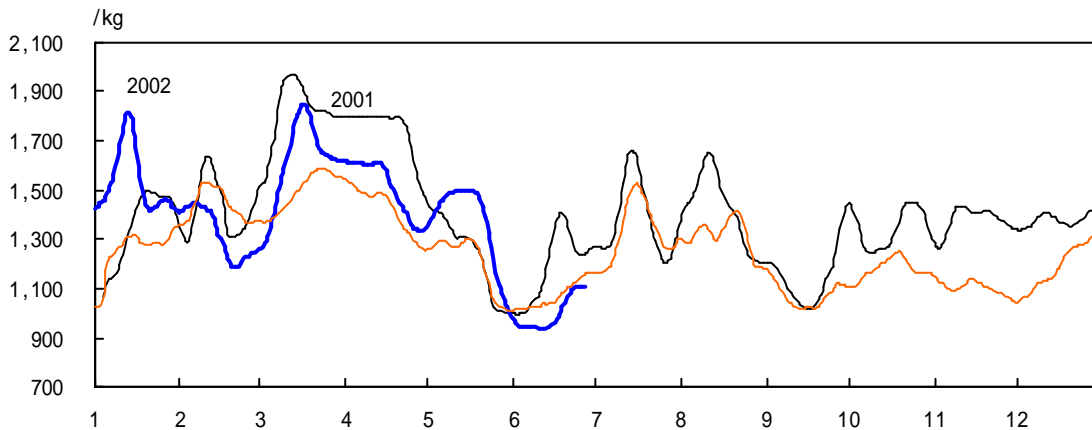
<계란 산지가격동향>



주: 5일이동평균가격.

- 1~5월 계란가격은 지속적인 소비감소로 전년보다 하락하였음. 6월 평균 가격(1~25일)은 특란 10개에 728원이었음. 7~8월은 계란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이고, 계란 공급물량이 전년 동기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8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809원)보다 하락한 750~8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육계 산지가격동향>



주: 5일이동평균가격.

- 시기적으로 질병이 감소하고 기후조건이 호전되어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6월 육계산지가격(1~25일)은 5월 1,368원보다 28.0% 하락한 kg당 986원이었음. 7월 도계수수가 6월보다 증가하나 초복, 중복 등 수요증가로 7월 산지가격은 6월보다 상승한 kg당 1,200~1,3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IV. 지역 언론 보도 내용

<지방일간지 23종에 보도된 6월중 농업관련 주요 이슈>

■ 보도 개황

- 6.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쌀대책 및 농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자 지역언론은 농민들의 반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음. 5월초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6월 하순까지 간헐적으로 재발을 거듭하자, 구제역 장기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불안심리와 양돈산업의 침체를 우려하는 보도가 많았고, 6월 들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농촌지역에서 지방선거와 월드컵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모내기와 과수적과 등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도 연일 취급되었음.
- 이와 함께, 중고 농기계 처리 문제와 농기계 부품 부족, 농기계 차량보험 가입 문제 등 농기계 정책과 관련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고,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각종 농업정책은 여전히 남성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농촌여성들의 불만 여론도 다수 다뤘음. 또, 고추와 인삼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관심있게 취급되었고, 농촌주민들이 농촌주택개선자금 금리가 도시지역 영세민 주택자금 금리보다 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도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음.

□ 농특위 쌀대책…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불투명 전망

- 농특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쌀대책과 농지제도 개선안에 대해 지역 언론은 농민들이 이번 쌀대책을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겨 결국 시장을 개방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보도. 특히, 추곡수매 감축 또는 폐지를 전제로한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도입여부가 불투명 하다고 전망.

- 경남신문은 사실을 통해 농산물도 경제력을 갖춰야 살아남는 현실을 감안해 이 대책이 잘 추진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시했고, 광주일보와 매일신문 등은 소득보전직불제 실시는 농민들의 반발로 도입이 불투명하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 규제가 약한 논농업직불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 구제역 장기화로 농가 불안 심리 확산

- 구제역이 6월 들어서도 2일과 8일, 11일, 23일 경기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재발하면서 강원 등 타시도에서는 가축시장 개장을 연기했고, 제주지역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안전지대'를 인정 받았으나 육지부에서 구제역이 근절되지 않아 대일 수출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구제역 장기화에 따른 농가 불안심리 확산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함.

□ 농촌인력 부족현상 심화

- 6월 들어 지역언론에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이슈로 다뤄진 가운데, 지방선거와 월드컵 영향으로 일손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보도함. 농촌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면서 품삯이 일부지역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두배정도 올랐으나 그나마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양파와 마늘 수확, 모내기등 영농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하고 당국의 대책을 촉구함.

□ 농기계 정책 개선 촉구 여론 높아

-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최근에는 농기계와 관련된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농민들은 농기계 반값 공급 정책으로 보유대수가 크게 늘어 최근 중고농기계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취급하는 매매상이 없어 값비싼 장비가 고철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농기계 제작업체의 잦은 모델변경과 단종으로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 바쁜 영농철 농기계 수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불만 제기와, 농기계가 영농장비로 분류돼 차량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면서 교통 사고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하는 등 농기계와 관련된 불만 여론이 높다고 보도함.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지지원 요구

- 농촌지역 인구 구성이 노령화·여성화되고 있어 남성들이 주로 담당했던 농기계 사용이나 모내기 등 농사일을 여성이 담당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각종 농업기술교육과 농업정책 등이 남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 시대변화에 맞게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함.

□ 고추, 인삼 재배면적 급증…부작용 우려

- 경북지역에서는 담배 민영화 이후 잎담배 생산농가들이 고추재배로 몰려 청송 등 대부분 지역에서 고추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해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남과 광주지역에서는 올해 인삼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난 83만7천여평에 달하는 등 3년새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들 작목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등 부작용을 우려함.

□ 주택자금 금리 都-農 차별 시정 여론

- 농민들은 농림부와 행자부가 농어촌지역 정주권 개발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자금을 연리 5.5%로 지원하고 있으나,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자금 등은 이보다 낮은 3.0%~4.6%에 지원되고 있는 등 都·農간 차별지원되고 있다고 지적, 농촌주민들의 주택개선 자금 확대와 함께 금리도 3~4%대로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보도됨.

□ 농민들 '월드컵 특수' 재미 못본다

- 우리 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농민들은 월드컵 특수를 노렸으나, 오히려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월드컵에 맞춰 집중 출하한 시설채소와 저장과일 등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축구 시청'에 몰두하면서 소비가 감소해 가격이 일부 품목은 지난달에 비해 오히려 20~30%나 하락하고 있다고 경기지역 언론이 보도함.

V. 이 달의 집중분석: 원유 · 한우

원 유

1. 원유수급 현황과 재고 급증의 원인
2. 착유우 도태정책에 따른 원유수급 전망
3.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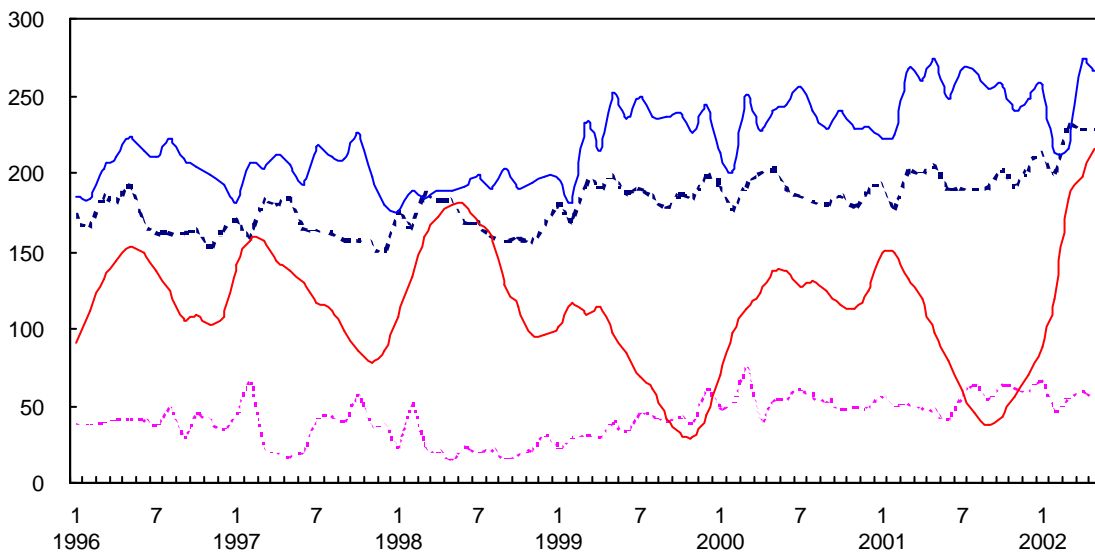
1. 원유수급 현황과 재고 급증의 원인

원유생산량과 수입량은 증가한데 비해 소비량이 감소하여 2002년 5월 원유재고량이 사상최대인 21만 6천톤을 기록함.

가. 원유수급 현황

- 2002년 1~5월 원유 공급량: 138만 7천톤(전년 동기간 대비 12.8% 증가)
 - 원유 생산량: 110만 3천톤(전년 동기간 대비 12.9% 증가)
 - 착유우 두수 증가: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
 - 비유축진제(BST) 투여: BST사용은 착유우 두수의 10%로 추정되며, 산유량 증가효과는 단기투여시 21~41%, 장기투여시 10~25%로 전체 원유생산량을 2~4%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됨.
 - 완전혼합사료(TMR) 사료급여의 증가(원유생산량 13% 증가)와 지속적 가축개량 사업
 - 원유 수입량: 28만 5천톤(전년동기간 대비 12.3% 증가)
 - 지난해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유가공업체에서 원유부족을 우려하여 수입주문을 늘렸기 때문임.

그림 1. 월별 원유 수급 동향, 1996.1~2002.5



자료: 낙농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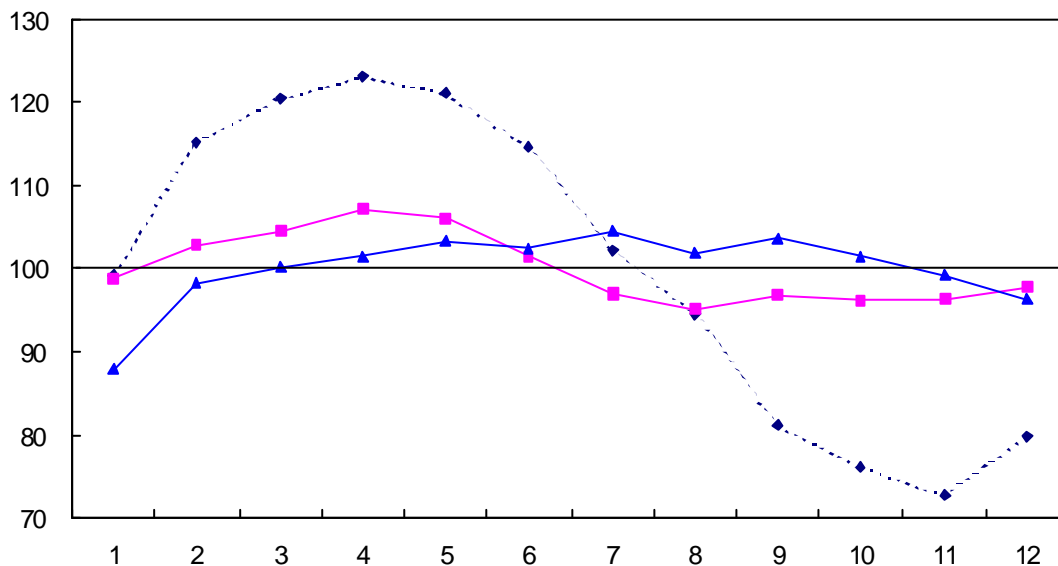
- 2002년 1~5월 원유 소비량: 122만 8천톤(전년 동기간 대비 1.8% 감소)
 - 시유소비: 67만 8천톤(전년 동기간 대비 3.7% 감소, 원유소비중 55.2% 차지)
 - ◆ 연초 TV프로그램의 채식강조와 건강대체음료의 시장확대로 시유소비량 감소(2001년 음료시장 전년대비 증가율: 주스 23%, 두유 20%, 음료 10%)
 - 가공용 소비: 55만톤(전년 동기간 대비 0.7% 증가)

- 2002년 5월 원유재고량: 21만 6천톤(전년동기 대비 122.9% 증가)
 - 원유 생산량 및 수입량은 증가한데 비해 원유 소비량이 감소

나. 원유재고의 구조적 원인

- 계절 변동: 원유재고량은 상반기에는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

그림 2. 원유의 생산, 소비, 재고량의 월별지수



자료: 낙농진흥회(1996~2001년 자료 사용)

- 상반기 증가 이유: 봄철의 생산량 증가와 겨울철 소비감소
 - ◆ 생산량 증가: 착유우 두수 증가, 영양분이 풍부한 조사료를 다량 섭취
 - ◆ 소비량 감소: 학교급식 중단으로 우유소비 감소
- 하반기 감소 이유: 여름과 가을철 생산량 감소, 소비증가

- 생산량 감소: 더위로 인한 산유량 감소, 가을철 젖소가 체력을 회복하는 시기
- 소비량 증가: 여름철 가공용 원료로의 원유소비는 증가

- **생산성 향상:** 1992~2001년 사이 두당 산유량은 22% 증가
 - 지속적인 젖소 개량 사업, 규모화로 인한 사양관리 기술 향상, 양질의 조사료 급여, 집유일원화로 인한 안정적 판로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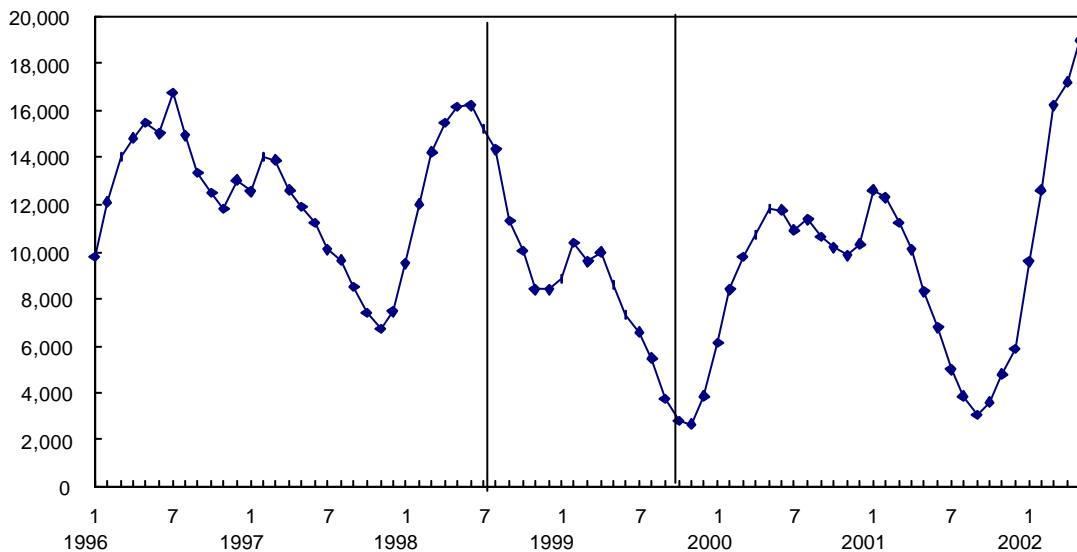
표 1. 두당 산유량 변화

비 고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두당 산유량(kg)	5,643	5,668	5,731	5,836	5,958	5,882	6,032	6,135	6,591	6,888
(전년대비증감률,%)	(1.9)	(0.4)	(1.1)	(1.8)	(2.1)	(△1.3)	(2.6)	(1.7)	(7.4)	(4.5)

주: 두당 산유량은 연간 305일 기준, 두당산유량=(산유량/착유우 두수)/365×305,
 자료: 농림부 축산경영과.

- **체세포 패널티 완화:** 1999년 10월 체세포 패널티를 30원으로 환원
 - 노산우 도태 지연, 원유 계획생산제 대비로 재고량은 증가하였음.
 - 1998년 체세포 패널티 강화 이후 재고량 감소, 1999년 완화를 기점으로 재고량이 증가

그림 3. 체세포 패널티에 따른 월별 분유재고량 동향, 1996.1~2002.5



자료: 한국유가공협회.

2. 착유우 도태정책에 따른 원유수급 전망

착유우 3만두 도태정책에 따라 2/4분기 원유생산량은 전분기보다 3.7% 감소하고, 2002년 원유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하여 12월 재고량은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원유수급안정을 위해 4.22~6.22까지 착유우 3만두를 도태하고 1마리당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였음. 도태기간이 길어지면 원유생산량 감소효과는 감소될 것임.
 - 6.22일까지 도태실적은 21,167두(추진실적 70.6%)임.
- 사육의향, 인공수정실적, 정부의 착유우 3만두 도태 정책 등을 고려한 6월 착유우두수는 3월보다 5.1% 감소한 25만 6천두로 전망됨. 착유우 두수 감소로 원유생산량은 5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4분기 원유 생산량은 1/4분기보다 3.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3만두 도태목표가 달성될 경우 2002년 원유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231만톤으로 전망되어 12월 재고량은 전년동기 대비 45% 감소한 5만 4천톤으로 전망됨.

표 2. 원유수급 전망

단위: 천톤, kg

구 분	정책 부재시					정책 고려시			
	2001	2002	2004	2005	2012	2002	2004	2005	2012
원유생산량	2,339	2,353	2,411	2,438	2,593	2,308	2,390	2,421	2,588
원유소비량	3,046	3,047	3,198	3,270	3,828	3,047	3,200	3,272	3,833
수입량	653	721	801	847	1,224	721	792	866	1,232
자급율(%)	78.5	76.2	74.9	74.0	67.9	76.2	74.1	73.4	67.7
1인당 원유 소비량	63.9	63.7	66.1	67.2	76.4	63.7	66.1	67.2	76.4
재고량	70	99	123	138	154	54	91	108	137

- 2003년 이후에는 생산성 증가로 원유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재고량은 9만 1천톤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도태정책의 영향은 2003년 이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자율적인 절소 도태 정책은 농가협조 여부에 따라 그 효과의 정도가 다르며 강제적으로 추진한다 할지라도 단기적인 재고량 감소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원유수급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함.
 - 현재와 같이 고정된 가격으로 생산된 원유가 안정적으로 판매되는 구조하에서 도태정책을 통한 재고문제 해결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3. 정책 방향

○ 계절별 차등가격제 도입

- 원유 가격 결정에 점진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생산량이 많은 계절에는 원유가격을 낮게 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원유가격은 높게 책정하는 계절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원유가격을 5% 인하하였을 경우 원유생산량은 2.4% 감소
- 시유가격을 5% 인하하였을 경우 시유소비량은 3.7% 증가

표 3. 가격 인하시 원유생산량 감소 및 시유소비 증가

구 분	1%	3%	5%	10%
원유생산량	-0.5	-1.4	-2.4	-4.8
시유소비량	0.7	2.2	3.7	7.4

주: 원유생산의 가격탄성치(0.4830), 시유소비의 가격탄성치(-0.7420)

○ 용도별 차등가격제 품목 확대

- 국내산 원유의 재고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치즈에 적용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 치즈용 원유가격 kg당 321원의 정부보조 실시, 2001년 용도별 차등가격제 소요예산은 138억원이었으며 원유 4만 3천톤에 대해 실시되었음.

○ 낙농진흥법 「원유의 계약생산(제9조)」과 「원유의 수급계획 수립(제8조)」 시행

- 쿼터제 도입시 국내 원유 및 분유의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원유대금의 안정적 수취여건 조성, 유업체의 경영부담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전업규모 이하의 낙농가는 규모화를 통한 전업규모로의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낙농산업의 구조조정이 효율적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임.
- 연간 순수익이 3천만원(도시근로자 가계소득수준 3천3백만원)인 착유우 규모는 26두(사육두수 50두)이며, 소득이 3천만원인 착유우 규모는 15두(사육두수 30두)임. 사육두수가 50두 미만인 규모는 40.1%, 30두 미만인 규모는 13%임.

○ 체세포 패널티 강화

- 체세포 패널티를 강화하여 원유생산량이 낮고 체세포 수가 높은 저능력우의 도태를 유도하여야 할 것임.
- 1998년 7월 체세포 패널티가 30원에서 60원으로 강화된 지 6개월 후 분유재고량이 계절적 추세치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체세포 패널티 강화로 월 평균 3,544톤의 분유재고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음.

○ 소비촉진 정책 및 홍보 강화

- 군납 및 학교급식 확대
 - 군급식 용량확대: 200ml 용량을 300ml로 확대하여 급식할 경우 전체 시유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연간 57,300톤)로 1.1%의 증가 효과가 있음.
 - 초·중·고등학생 모두가 우유급식 대상이 될 경우 전체 시유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11.3% 증가 효과가 있음.

표 5.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시유소비 증가 효과

구 분	50%	60%	70%	80%	90%	100%
학생수(천명)	3,976	4,771	5,566	6,362	7,157	7,952
시유소비량(천톤)	159	191	223	254	286	318
소비증가효과(%)	1.8	3.7	5.6	7.5	9.4	11.3

주: 200ml 기준, 급식일수는 200일로 가정.

- 학교급식용은 비과세로 전환하고 저학년, 고학년 용량의 차등화, 공급품목 다양화 등으로 우유를 마시는 습관 조성

- 낙농자조금을 통한 TV 홍보 강화

- 지난해 낙농자조금 사업을 통한 우유소비량 증가효과: 12만 4천톤

※ 일본은 1994년 39천달러일 때 시유소비량이 42kg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일본의 예를 볼 때,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시유소비량이 다소 증가할 잠재력이 있음.

표 4. 한·일간 소득과 시유소비량 비교

단위: 달러, kg

구 분		1985	1990	1994	1995	1996	1999	2000
일 본	1인당 GNI	11,508	25,082	38,838	42,558	37,722	36,156	37,875
	1인당 시유소비량	35.6	40.4	41.9	41.0	41.2	39.3	39.2
한 국	1인당 GNI	2,229	5,886	8,998	10,823	11,380	8,551	9,628
	1인당 시유소비량	18.2	31.2	34.8	34.5	35.8	27.6	35.4

자료: 일본 농축산업진흥사업단(ALIC), 한국은행.

<부록> 해외 사례

가. 미국

□ 젓소 도태프로그램(Dairy Termination Program)

- 근거 법규: 1985년 농업법(Food Security Act of 1985)
- 목적: 원유생산량 증가에 따른 재고물량 감소
- 대상: 낙농가
- 실시배경: 원유가 과잉 생산되어 소비되지 않고 남은 원유는 유제품으로 가공된 후 정부에 의해 매입됨. 정부는 재고물량 처리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껴 적정 원유 생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함.
- 정부수매량: 80억 파운드(1984) ⇒ 130억 파운드(1985) (원유생산량의 8.7%)
- 세부내용
 - 주목적: 1985년 생산량기준 120억 파운드의 재고량 감소
 - 프로그램에 참가한 낙농가는 86년 4월~87년 9월 사이에 보유한 모든 젓소를 도축시키거나 외국으로 수출하여야 하고, 향후 5년간 낙농산업에 재진입해서는 안 됨.
 - 실제 참여농가는 14,000여 농가(123억 파운드 원유생산에 해당)로 연방 정부 재정부담은 18억 달러였음.
 - ▲ 앙케이트 조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
 - 40% 이상의 농가가 5년 뒤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
 - 26%의 농가가 5년 뒤 낙농산업에 재진입할 의향 있음.
 - 26%의 농가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낙농업 포기 결심
- 프로그램 실시결과
 - 농가들의 프로그램 참여로 원유생산은 감소하였으나, 비참여 농가들은 생산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을 예견하고 오히려 생산량을 늘림.
 - 생산량: 1986년(전년대비 1% 증가), 87년(전년대비 0.5% 감소)
 - 재고량: 1985년(132억 파운드)⇒86년(106억 파운드)⇒87년(67억 파운드)

○ 미국 젓소 도태프로그램의 시사점

- 단기적으로는 원유 생산감소와 재고량 감소의 효과가 있었으나, 비참여농가의 원유생산 증가와 프로그램 종료 후 퇴출농가의 낙농산업 재진입으로 정책적 효과 감소. 한시적인 낙농가 퇴출 정책만으로는 장기적인 원유의 수급안정을 기할 수 없음.

나. 일본

□ 부족불 지불제도 하의 수급조절(1966년부터 실시)

- 1960년대 중반까지는 유업체 주도의 수급조절을 실시함. 계절별 가격차 등제를 통해 여름철과 겨울철의 가격을 조정하였으며, 혼합유가제도를 채택함. 낙농가와 유업체간 특약관계를 통하여 원유공급의 계절성을 극복하고, 제품판매를 위해서는 전문점화를 통하여 가정배달을 늘림으로써 수요의 계절성 극복
- 1966년부터 부족불지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유시장은 자유시장(음용유시장)과 관리시장(가공원료유시장)의 2중구조로 전환됨. 수급조절 방법은 생산자단체 주도하의 생산할당제(Quota system)로 EC와 같이 강제성을 지님.
- 부족지불제도는 보증가격과 기준거래가격 차액을 한도 수량범위 내에서 정부에 의해 낙농가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불하는 제도임.
 - 안정지표가격: 버터 등 지정유제품의 소비안정을 목표로 하는 가격
 - 기준거래가격: 안정지표가격에서 유업체 제조경비 및 유통경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유업체가 가공원료유에 대해 지불가능한 가격
 - 보 증 가 격: 가공원료유의 생산비를 기초로 재생산확보를 위해 결정된 가격으로 가공원료유의 판매가격
 - 부족불제도하에서 수급조절은 보조금 지급대상수량을 의미하는 한도수량을 통하여 이루어짐. 한도수량을 초과하는 가공원료유는 저가에 거래됨에 따라 과잉생산 억제. 또하나의 수급조절은 축산진흥사업단의 지정유제품 시장개입을 통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부족불제도는 보증가격의 하방경직적 운영으로 인하여 수급불균형 야기

□ 계획생산 체제 하의 수급조절(1979년 ~ 현재)

- 계획생산체제 운영방법은 먼저, 수요량을 예측하고 원유공급량을 결정함. 그 다음 생산자단체에 대한 공급목표 수량을 배분함.
- 원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용도별 수급조절 시행(경비부담은 정부, 자조금에 의한 생산자단체)
- 계획생산하에서도 기후, 경기동향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는 수급불균형 발생
 -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 과징금 부과 및 납유거부 등 직접적인 원유생산 억제, 유제품으로 가공하여 일반시장으로부터 격리시켜 중앙낙농회 관리하에 두고 시장격리 방법
- 일본은 과거 19년간(1979-1997) 원유수급상 공급과잉이 5회 공급부족이 14회로 공급부족이 절대적으로 많았음.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공급부족량이 총수요량의 1.2%에 불과하여 계획생산이 비교적 성공적이었음.
- 1970년대말 공급과잉시 계획생산을 도입하여 1981년 공급과잉은 완전해소
- 1986년 공급과잉시 치즈기금 설립을 통하여 유업체가 치즈용원유를 낮은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축산치즈의 생산증가를 통하여 원유수요 확대, 원유의 기준 지방율을 3.2%에서 3.5%로 상향조정하여 음용유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증가를 통한 공급과잉 해소
- 1993년 공급과잉시 국산원유를 이용한 생크림 생산을 증가시켜 버터나 탈지분유에 비하여 품질이 뛰어난 액상유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원유의 수요를 증가시켜 수급불균형 해소

□ 특별조절유제도의 도입(1988년부터~현재)

- 원유수요량 예측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연도중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원유공급 계획수량을 절대적 원유필요량과 가변적 원유 수요량(특별조절유)으로 구분하여 공급부족시에는 특별조절유가 음용유용 원료로 판매되며, 공급과잉시에는 우선적 감산대상이 되며 일반시장으로부터 완전 격리됨.
- 격리방법은 출하제한, 위탁가공에 의한 유제품생산, 과잉유제품의 수매 등이 있음. 출하제한방법에는 지정생산자단체가 직접 원유량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착유우두수 감축, 원유폐기 등이 있으며, 위탁가공은 지정생산자단체가 특별조절유를 유제품으로 가공하여 중앙낙농회의 관리 하에 두어 시장으로부터 격리되는 방법임. 그리고 수매는 출하제한과 위탁가공 방법으로 특별조절유를 일반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없는 지정생산자단체에 대해 중앙낙농회가 특별조절유에 해당하는 유제품을 일반시장으로부터 수매하는 방법임.
- 일본 낙농정책의 시사점
 - 직불제도(부족불지불제도)는 보증가격의 하방경직적 운영으로 수급 불균형을 야기되어 계획생산을 실시하게 됨. 그러나 계획생산은 원유수요량 예측의 한계로 특별조절유제도가 추가로 도입됨.

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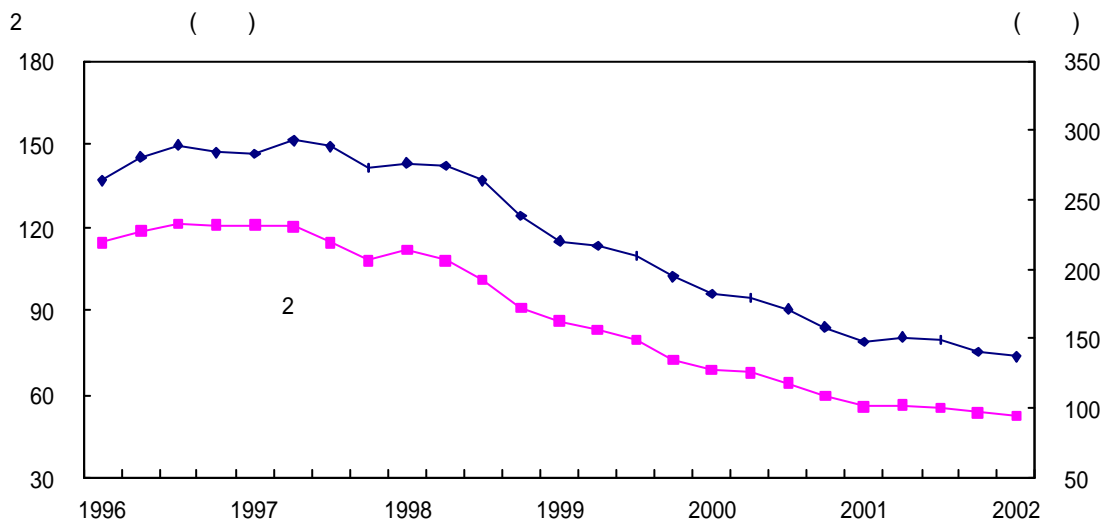
1. 한우 사육과 수급동향
2.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의향 변화
3. 한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전망

1. 한우 사육과 수급동향

가. 사육동향

- 한우 사육두수는 1997년 6월에 293만두의 최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함. 2001년 6월 151만두로 소폭 증가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 3월 137만두까지 감소하였음.
- 2세이상 암소두수는 1996년 9월 121만두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감소함. 2001년 6월에 56만두로 소폭 증가한 이후 2002년 3월 53만두까지 감소하였음. 전체사육두수 중 2세이상 암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9월 43%에서 2002년 3월 38%로 감소하였음.
- 한우 사육가구수는 1996년 12월 51만 3천 가구에서 2002년 3월 22만7천 가구로 감소하였고, 호당사육마리수는 5.5두(1996년 12월)에서 2002년 3월 6.1두로 소폭 증가하였음.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수입자유화 이전까지 농가들의 사육심리가 매우 불안정하여 사육두수와 사육가구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둔화되어 농가들의 사육심리가 점차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우 사육동향>



자료 : 농림부

나. 수급 동향

- 수입자유화 첫 해인 2001년에 쇠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영향으로 쇠고기 수입은 전년에 비해 24% 감소한 16만톤이 국내로 들어왔음.
- 국내 사육두수 감소와 농가 사육심리 안정으로 2001년에는 한우 출하두수가 크게 감소하여 쇠고기는 전년에 비해 25% 감소한 16만톤이 생산되었음.

<쇠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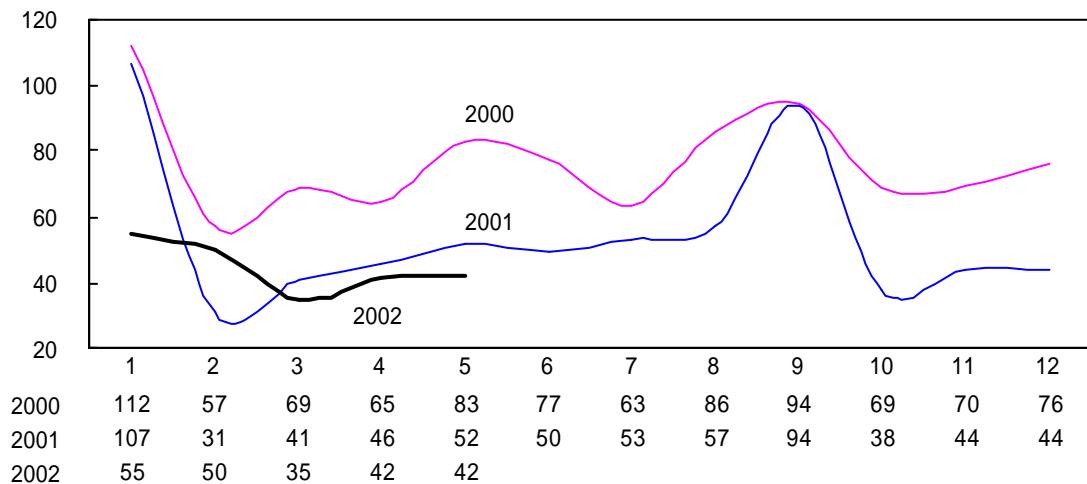
	공급			수요			계	자급률 (%)
	이월재고	당년생산	당년수입	국내산	수입산	차년이월		
1999	42	227	163	240	153	39	432	61
2000	39	214	223	212	190	74	476	53
2001	74	160	162	162	213	20	395	43

주: 자급률은 국내산수요/(국내산+수입산)수요

자료: 농림부

- 2002년 3월 사육두수가 전년 동기대비 7% 감소한 것에 비해, 2002년 1~5월 한우 도축두수는 22만 3천두로 전년 동기기간에 비해 19% 감소하여 농가들의 도축의향이 감소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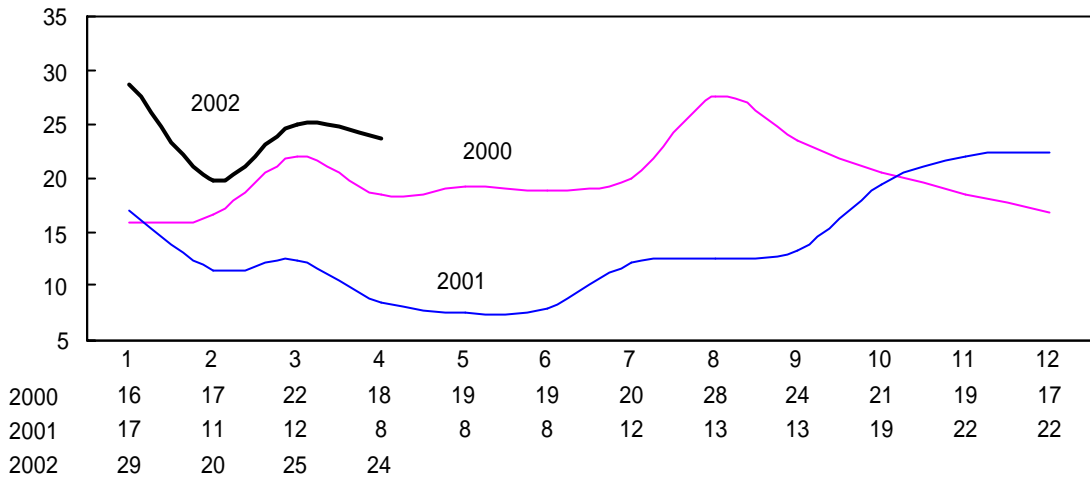
<한우 월별 도축현황>



자료: 농림부

- 2001년 10월 추석수요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상승으로 쇠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함. 국내 출하두수 감소에 따른 국내 공급 물량 부족으로 쇠고기 수입은 계속 증가하여 2002년 1~4월 쇠고기 수입은 9만 7천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8% 증가함.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검역기준)>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1999년 이후 최근 4년간의 국내 쇠고기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의 비중이 49%('99년)에서 65%('02년)로 크게 증가함. 뉴질랜드도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기타 국가들의 비중은 조금씩 감소함.

<국별 쇠고기 수입현황(검역기준)>

단위:톤,(%)

	1999		2000		2001		2002(1~4월)	
미 국	97,703	(49)	131,505	(55)	95,671	(58)	63,266	(65)
호 주	79,625	(40)	70,271	(30)	54,410	(33)	21,823	(22)
뉴질랜드	8,535	(4)	11,170	(5)	10,171	(6)	8,373	(9)
캐나다	11,616	(6)	18,615	(8)	5,665	(3)	3,939	(4)
기 타	10	(0)	6,280	(3)	356	(0)	-	-
계	197,489	(100)	237,841	(100)	166,273	(100)	97,4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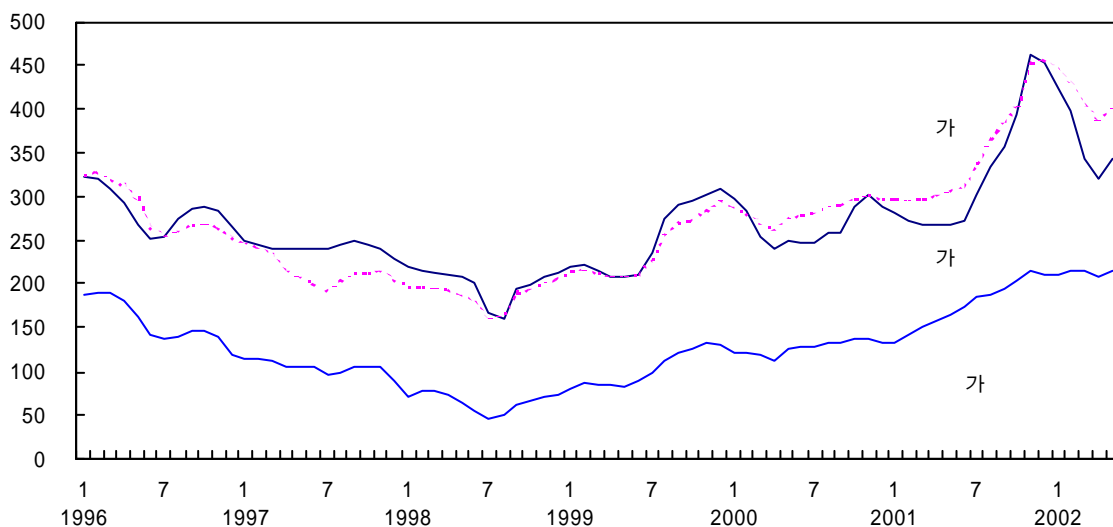
주: ()은 수입비중임.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다. 가격동향

- 사육두수 감소와 2001년 하반기 이후 사육의향 안정화에 따른 농가 출하두수 감소로 한우 산지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음. 2001년 추석을 전후로 산지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여 한우 산지가격은 2001년 11~12월 이후 하락하다가 2002년 5월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음.
- 2001년 11월 460만원대로 상승한 한우수소(500kg) 산지가격은 2002년 4월 320만원대로 하락하였고, 5월에 340만원대로 상승한 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2001년 11월 450만원대로 상승한 한우암소(500kg) 산지가격은 2002년 4월 380만원대로 하락하였고, 5월에 400만원대로 상승한 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큰소와는 달리 한우 수송아지가격은 2001년 하반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2001년 10월 이후 2002년 5월까지 200~210만원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한우 산지가격 동향>



자료: 농협중앙회.

2. 한우사육농가의 사육의향 변화

가. 사육형태에 따른 농가소득 변화

- 번식우와 비육우의 두당 평균소득은 환율상승에 따른 생산비 인상과 출하 증가로 인한 한우 산지가격 하락으로 1997년과 1998년에 크게 감소함.
 - 1997년과 1998년에는 번식우 두당소득이 감소하여 암소도축률¹⁾은 32%까지 상승하였음.
- 1999년과 2000년에는 경영여건이 점차 안정되면서 두당소득이 증가하였으나, 번식우에 비해 비육우의 두당소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비육사육의 유리성과 2001년 수입자유화에 따른 사육심리 불안으로 암소도축률은 2000년에 39%까지 상승함.
- 2001년에는 환율 안정에 따른 농가경영 여건 안정, 출하두수 감소로 인한 산지가격 상승으로 번식우와 비육우의 두당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비육우의 두당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번식우 두당소득 증가로 암소도축률은 31%까지 하락하였으나, 사육두수가 증가하던 시기에 비해 높은 수준임.

<번식우와 비육우의 두당 수익성 비교>

단위: 천원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번식우	조수입	1,350	823	451	685	881	1,176
	경영비	466	537	715	634	665	658
	소득(A)	884	285	△264	50	215	518
비육우	조수입	3,407	2,814	2,212	2,689	3,162	3,800
	경영비	2,389	2,740	2,291	1,856	1,986	2,381
	소득(B)	1,017	73	△79	833	1,175	1,418
상대소득 (A/B*100)		87	390	-	6	18	37
암소도축률(%)		8.4	25.6	32.0	39.2	38.9	31.1

자료: 축협중앙회(축산통계총람 1998), 국립농산물검사소(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서).

1) 암소도축률 = 전년도1세이상암소도축두수/전년도1세이상암소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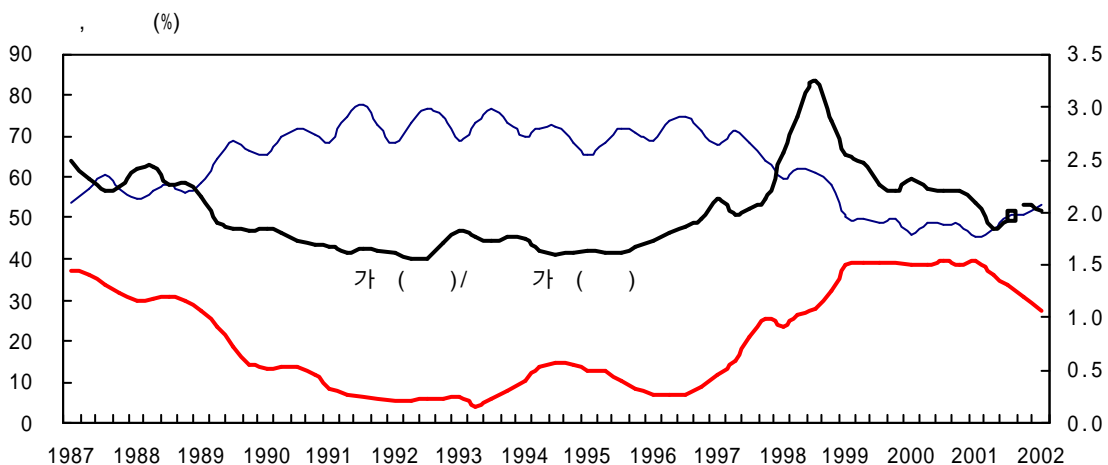
나. 암소사육농가의 번식의향 변화

□ 암소비육경영지수($\frac{\text{암소가격(비육)}}{\text{송아지가격(번식)}}$)변화와 번식농가의 의사결정

- 1987년 ~ 1999년
 - 높은 비율: 비육이 유리 (1987~1988, 1998~1999)
 - ⇒ 상대 암소가격이 높아 암소도축은 증가하고 송아지 생산은 감소
 - 낮은 비율: 번식이 유리 (1989~1997)
 - ⇒ 상대 암소가격이 낮아 암소도축은 감소하고 송아지 생산은 증가
- 2000년 이후 암소비육경영지수 하락추세
 - 번식이 유리 ⇒ 암소도축률은 하락, 송아지출산률은 상승할 시기
 - 2001년 쇠고기수입자유화 영향으로 2001년 상반기까지 암소도축성행
 - 2001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암소도축률 하락, 송아지출산률 상승
 - 암소도축률: 2001년 3월 39%에서 2002년 3월 27%로 하락
 - 송아지출산률: 2001년 3월 45%에서 2002년 3월 53%로 상승
- 암소비육경영지수가 사육두수를 예측하는 지표로 약 1년의 시간차
 - 2002년 상반기중 사육두수 소폭 증가할 전망

☛ 암소비육경영지수가 2001년 6월 이후 소폭 상승하여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번식농가의 경영여건 변화와 출산율·도축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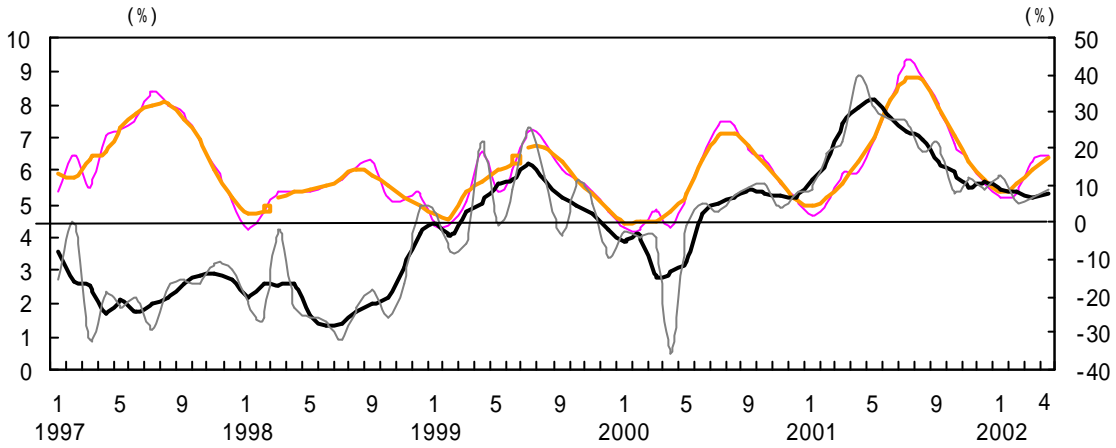
주: 송아지출산율 = $\frac{\text{송아지생산두수}}{\text{전년도1세이상암소두수}}$, 암소도축률 = $\frac{\text{전년도1세이상암소도축두수}}{\text{전년도1세이상암소두수}}$

다. 송아지 두수 변화 추이

□ 인공수정률²⁾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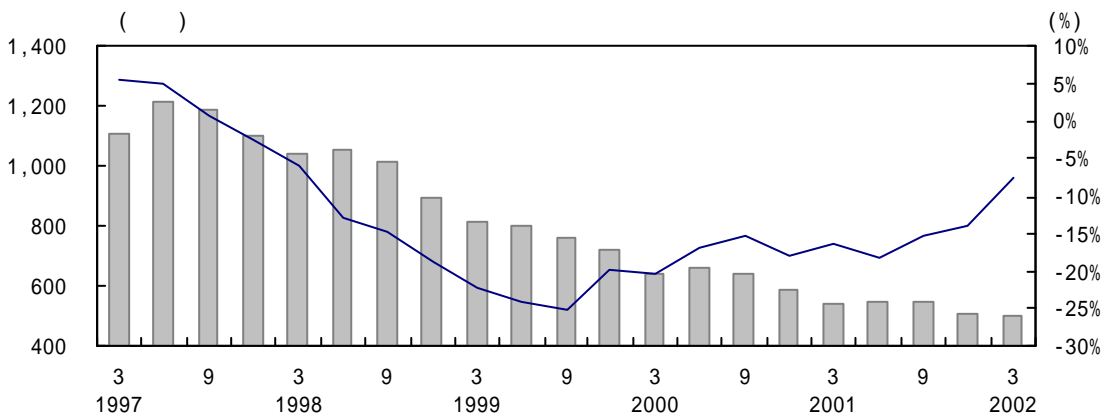
- 송아지가격은 1998년 중반부터 상승하였으나, 최고기 수입자유화로 인해 인공수정률은 2000년 중반부터 전년 동월에 비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상반기에는 인공수정률이 전년 동월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임신기간 10개월을 고려할 때 2002년 상반기에는 송아지 생산두수가 많이 늘 것으로 전망됨.

<한우 월별 인공수정률 변화추이>



주: 월별 인공수정률 = $\frac{\text{월별 인공수정두수}}{\text{월별 1세이상암소두수}}$

<한우 1세미만 송아지두수 변화추이>



2) 인공수정률이란 “인공수정두수/1세이상암소두수”을 의미함.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암소사육농가들의 번식의향이 전년에 비해 커지는 것을 의미함.

3. 한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전망

가. 한우 사육두수 전망

- 암소비육경영지수 하락으로 암소비육사육에 대한 유인이 작아짐에 따라 2001년 월별 인공수정률은 전년 동기기간에 비해 평균 20% 상승하였고, 암소도축률은 평균 26% 하락함.
- 작년 상반기 인공수정실적과 계절적 특성으로 볼 때 3~5월에는 송아지생산두수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고 도축두수는 구정 이후 감소하는 시기여서, 한우 사육두수는 6월에 144만 8천두까지 증가함.
- 6~8월에는 3~5월보다 송아지 생산은 감소하나 지방자치제 선거와 월드컵 개최에 따른 쇠고기 수요증가로 도축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9월 한우 사육두수는 6월과 비슷한 145만 3천두로 전망됨.
- 암소사육의 경영여건, 인공수정률, 암소도축률 등을 고려하면, 향후 2~3년간 한우 사육두수는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한우 사육두수 전망>

단위: 천두, %

기간	송아지생산두수	도축두수	순증가분	한우 사육두수
12~ 2월	(100) 148	(214) 183	△ 35	'02년 3월 : 1,371
3~ 5월	(169) 196	(138) 119	77	'02년 6월 : 1,448
6~ 8월	(138) 140	(160) 135	5	'02년 9월 : 1,453

주: 1. 괄호안은 1년 전 통계치임.

2. 분기별 송아지생산두수는 가축통계자료를 이용한 농업관측정보센터 계산치.

나. 쇠고기 수급 전망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쇠고기 소비 감소현상이 뚜렷하지 않고 쇠고기 가격이 높은 수준이어서, 2002년 6~8월 한우 도축두수는 전분기보다 약 1만 6천두 늘어난 13만 5천두로 전망됨.
- 구제역으로 인한 쇠고기 수요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월드컵 개최, 경제회복에 따른 쇠고기 수요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한우수소(500kg) 산지가격은 올 6~8월에 340~370만원까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한우 산지가격 상승으로 쇠고기 수입은 증가하고,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젖소 3만두 도태"(6월 22일까지 2만 1천두) 계획에 따라 젖소암소 도축물량이 증가하여 8월까지 한우 산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쇠고기 수급과 산지가격 전망>

	단위	도축두수	생산량	수입량	공급량(전년대비)		수소산지가격(500kg)
		천두	천톤	천톤	천톤	(%)	만원
2000년	12~2월	253	56	50	106		279
	3~5월	216	48	59	107		246
	6~8월	227	50	67	117		255
	9~11월	232	51	63	114		293
2001년	12~2월	214	47	45	92	(△13)	274
	3~5월	138	31	28	59	(△45)	269
	6~8월	160	35	33	68	(△42)	332
	9~11월	176	39	55	93	(△18)	437
2002년	12~2월	183	40	71	111	(21)	389
	3~5월	119	26				336
	6~8월	135	30				340~370

주: 도축두수는 젖소암소제외, 도체전생체중 550kg가정, 정육률 40.2% 가정.